朝鮮日報
朝刊

社說 歐洲의暗雲과 英外交의特質

和蘇獨立과暗雲의必然性

一

昨紙 外電에依하면 世界大戰의 直接原因이되여잇는 墺太利皇太子 프란시스·퍼딜란드殿下가 사라제보에서 一靑年의 피스톨에 悽慘히 이生을마친 滿二十週年 記念日 六月二十八日을期하야 英國政府는 白耳義政府에對하야 二十年前의 仇敵인 獨逸과의 不侵略條約締結을 勸告하엿다 한다. 此에對하야 白耳義政府는 그事實을 否定하엿고 또 나치스政府도 否認하엿스나 萬一 英國의勸告대로 如斯한條約이 締結된다면 平和에貢獻함이 頗多大할으로 獨逸로서는 勿論 크게歡迎하는바이다 하고 附言한事實은 特히 注目되는바이다. 他面 佛蘭西를除한外의東歐羅巴 七個國(獨逸, 체코스로바기아, 波蘭, 蘇聯,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니아等)間의 安全保障條約締結이 체코國에依하야 提議되엿다 한다.

二

이와가티 昨今 歐羅巴天地는 表面上으로는 平穩한듯하면서도 그裏面의暗流는 자못 險惡하고 또複雜하다. 勿論歐洲의風雲은獨佛의犬猿的關係와 露獨의 感情的對立에 基因하야 나나리險惡化하여감은 世人이 周知하는바 事實이어니와 여게서 看過할수업는것은 大英帝國의 存在이다. 英國이 歐洲政局에 보내는秋波는 그目的이 大戰以前이나 大戰以後에 다름이업다. 이것도 歐洲諸國의 勢力均衡을 企圖하려는 政策이다. 即 英國의 所謂 大陸政策은 恒常 歐洲大陸에 一個의 强大國家出現을 防止하고 勢力均衡을 企圖하는 조흔意味의 勢力均衡이안이라 弱한勢力을 援助하야 强한勢力을 粉碎하고 그弱한勢力이 强하여지는境遇에는 다시 그勢力을 破壞하는 即, 結果로본 勢力均衡政策인 것이다. 大戰前의 獨逸勢力은 經濟的으로, 軍事的으로, 歐洲大陸의覇權을 잡엇슬뿐아니라 貿易또는 海軍競爭에잇서 英帝國의 威脅이 되엇섯다. 英國은 大戰當時에 聯合國中에 어느나라보다도 더만흔 犧牲을 當하여가며 獨逸의 勢力粉碎에 熱中하엿섯다. 大戰後佛蘭西가 漸次 歐洲의 覇權을잡게되는 事實을보고잇는 英國은 이에다시 佛國勢力破壞의必要를 認定하게되엿다. 그리하야 于先 自國의安全을 爲하야 얼마前에 白耳義에關한 軍備宣言을發하고 이에다시 獨白間의 不侵略條約締結을 勸告하는同時에 蘇佛提携를 牽制하기爲하야 東歐七國團體가튼것도 꾀하고잇는것이다.

三

「歷史는反復되는것이다」라고 한 어느學者의말을 證明하려함인지 世界大戰이 勃發된지 滿二十週年을마지하는 今日에 歐洲政局은 正히 大戰直前의 그것과 彷彿한배가잇다. 八百萬의生靈을 犧牲하고 大戰의慘禍와 物質的損失에 只今까지 그渦中에서呻吟하는 各國國民으로 이에다시 惡夢을이르키고잇다는것은 一見 不可思議한일인듯십다. 그러나 此等諸國이 모다 好戰的國民이되여 그런것도안이오 어느一個國이 特別히 납버서그런것도안이다. 過去에잇서서도 그리하엿지마는 現代에잇서서는 保護的國家主義로 各利害關係를압아 平和工作을 强者의 手으로 國際聯盟이니 不戰條約이니 또는 軍縮會議니하는 여러가지機關會合이 出現한것이 事實이다. [illegible] 그러나 現狀에不滿을가진 國家民族이 잇는以上 그들사이의 平和的相互依存은 永遠한夢想으로 남어잇슬것이다. 따러서 우리는 常識的으로 紛爭兩解決에 努力하는것도 必要하지마는 싸우지안코는살지못하게되는 現世界政治組織의 根本的病根은 무엇이며 同時에各國民各民族이 相互紛爭할것은 全然업는가? 하는 問題도 한번再考할必要가 잇는가한다.

中央의討共計劃을 無條件으로承認

四路軍連名으로써討共宣言

國府의西南統一策成功

【廣東電】廣東에서열린何健 李宗仁 陳濟棠等의三省軍事會議는 時節이時節인만큼各方面의注目을끌고잇는데 右에對하야南京政府某要人은 二十七日左와 如히말하엿다

何健 黃紹雄 何健氏等이前後하야廣東으로 入하야陳濟棠 李宗仁 白崇禧氏等兩廣當局과會見折衝한 結果此等兩廣當局은中央에서 決定한各路軍聯合討共計劃을 無條件으로承認하게되엿스나 具體的實行方法도決定되엿스나 軍의機密에關한것임으로 發表할수업다 다만其中에表現된 江西及福建에 入한兩廣討共部隊는 七月一日부터直接 南昌行營의 指揮命令에 服從하는 同時에 東西南北各路 討共總司令及 各總指揮 各縱隊司令等 聯名으로七月一日付로써 討共決意를宣明하는 通電을發表한다는 二項이잇다는것은 言明할수잇다

【香港電】陳濟棠氏는 二十三日 林翼中氏를派하야 何健氏와 數時間密談케하엿는데同氏會談後 何健氏는 書面으로써左와如한 談話를發表하엿다

今回南下하야 陳濟棠 李宗仁 白崇禧等과 討共에對하야協議하엿다 安內攘外는 救國不二의法門이다 安內에는 于先 討共을完成치안으면 안된다 故로 余는 兩廣當局과討共聯絡을 圖하기爲하야 南下하엿다

西南兩機關은 現狀그대로維持乎

外論社의報道에依하면 五省軍事會議는 左의諸項이다

一、討共問題는 豫定計劃에基하야一致協力할
二、國防問題는 各省自身에依하야 海港防備를鞏固히할
三、交通發展을爲하야 西南民航公司는 廣州長沙間의旅客輸送을開始할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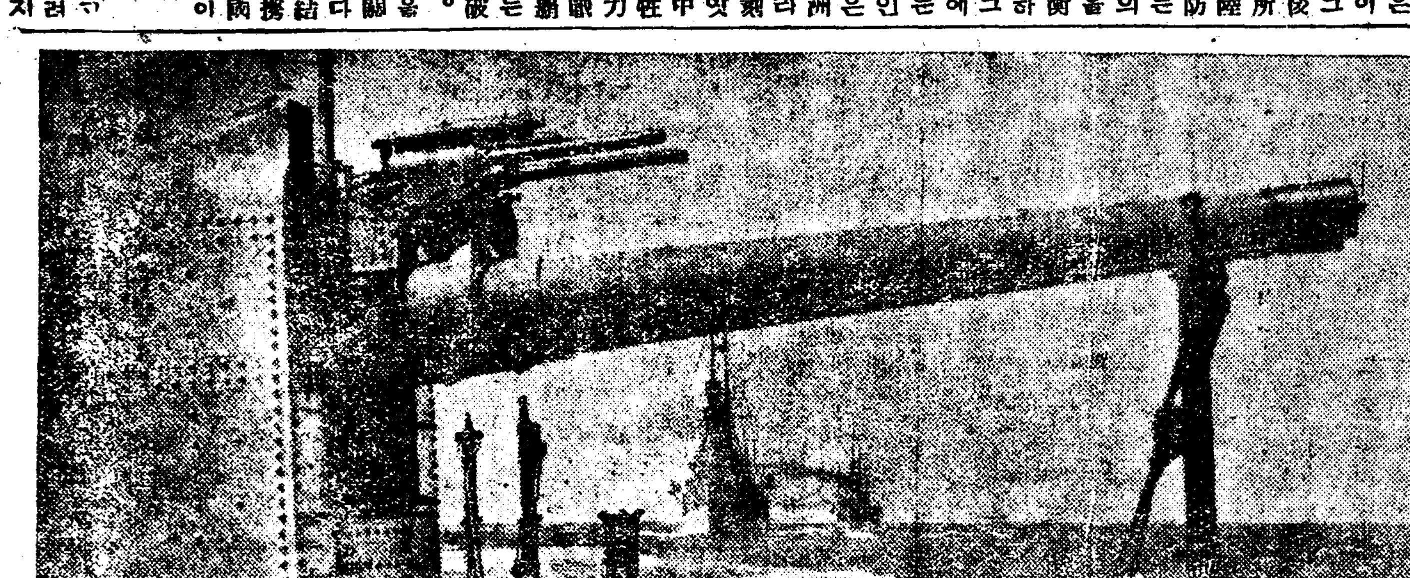
等三件을決定하고 그리고陳濟棠의時局에對한意見은左와如함

一、西南五省은 討共에協力할
二、五省의黨政을協力合作할
三、西南行政은 現狀을維持하고 政務執行兩機關은擴大치도안코 縮小치도안음이것으로

中央과西南은 이에一致融合되엿다

米陸軍省注文 爆擊機八十一臺

【華盛頓二十九日發】米國陸軍省은 二十九日글렌마틴會社에 爆擊機八十一臺 라잇트飛行會社에 飛行機用發動機二百八十個의注文契約을發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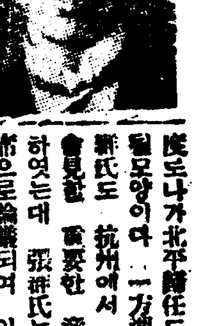


米聯合艦隊다시太平洋으로

約二個月間 太西洋岸에 잇든 主艦隊는 다시 乾板利摩하야 파나마로 向하얏다 寫眞上은 뉴욕리안스號先頭로 第一戰闘艦隊의航進 下는 煙幕을 돌코나가는航空母艦렉신톤號

全權賦與不容認으로 黃郛氏消極的態度

北平政務委員長後任으로 張群氏를代位할모양



(寫眞은黃郛氏)

【上海發】共產軍討伐에關한 西南政府와의提携가可能하게되엿슴으로 蔣介石氏는南昌을벗고 今日午後一時 杭州로부터 廬山으로向하엿는바 確聞하면 黃郛氏와 會見에잇서 黃郛氏가 要求한 北中에잇서日中懸案解決의 全權을附與할것에關하야는 蔣介石氏는黃郛氏의要求를 容認치안엇슴으로 黃郛氏는 이러케되면 北中에잇서 政務委員長의 職務에잇기를欲求치안코 極히消極的態度로나가 北平赴任도 無期延期될모양이다 一方 湖北省主席張群氏도 杭州에서 蔣介石氏와 會見하고 重要한 意見交換을 行하엿는데 張群氏는 河北省主席에 就任하야 北平政務委員長에 日本通이오 軍人인 張群氏의外交手腕을 發揮케하려는 蔣介石氏의心境이라고도 觀測되는바 其會見內容이 頗히注目되여잇다 그推移는 자못注目되여잇다

中國의關稅引下 一層考慮를要望

外省當局談으로發表

【電通東京電話】中國의現行關稅에對하야 日本은 日中通商關係의 大局에鑑하야 適切히改正을 要求하고 中國政府와의間에 交涉하엿는데 中國政府는七月一日을期하야日本에有利한改正新稅를實施하기로決定하엿다는報道가傳하고外務當局은三十日右關稅改正에關하야 左와如한談을 發表하엿다

中國의 關稅改正問題에關하야 日本이 中國側에對하야 實際的으로考慮하는데 對하여는 我國도此를感謝하나 中國側의考慮한結果를 보면 日本의要求는 아직充分히考慮치안엇슴으로 我國은 此點에關하야 다시 中國側의 考慮를 希望한다

카라한氏 駐土大使로任命

【莫斯科二十九日發聯合】外務人民委員部次長카라한氏는 二十九日土耳其駐在大使로任命되엿다

奉山北寧兩鐵路局 對東方旅行社協定內容

【奉天二十八日發聯合】奉天北平間의 直通旅客列車運轉에關하야 奉山, 北寧兩鐵路와東方旅行社와의間에 協定된그內容은 左와如하다

一、鐵路(奉山, 北寧兩鐵路)及東方旅行社에 直通列車의經營을承認함
一、直通列車는 當分間每月奉天北平各一列車를運轉함
一、奉天山海關間, 北平山海關間의 直通列車運轉은鐵路에서代辦함 右運轉에要하는費用은 各鐵路의負擔으로함
一、直通列車編成及旅客車, 貨物車의數는三等車四輛, 食堂車一輛, 二等寢臺車一輛, 一等寢臺車一輛, 一等展望車一輛으로함 四個列車로서運用하나 그中二個列車는 當分間一等展望車를連結치안음 但鐵路는必要에應하야 直通列車에對하야 山海關附近에서 客車를增結함
一、直通列車編成, 車輛及此에必要한客車備品은 旅行社에서準備함을 原則으로하나 但車輛完成까지 約一個年間은鐵路에서旅客車輛의半數를貸與함
一、機關車及乘務員의交代點은 山海關으로함
一、直通旅客及手荷物運賃料金은鐵路所定에 依하야社는右中百分之五를 取得하고그殘餘는鐵路에交附함 直通乘車券은鐵路各驛에서 發賣하는外代賣乘車券은 代賣業者로하여금代賣케함
一、鐵路는直通車에依한奉天山海關間 北平山海關間各驛相互間及發着手荷物의 運送費를取得함 그運賃料金은
一、車輛使用料金及鐵路上의工事에關한事項은 此事別로協定함
一、食堂車營業은 旅行社直營으로함 車輛 食堂車完成하기까지(約一個年)鐵路에서食堂營業함
一、事故에關한損害賠償은 그原因이車輛에基因하는外는不可抗力이고안이고를不拘하고 鐵路의負擔으로함 또鐵路의貸與한車輛에基因하는 事故에對한損害賠償은그發生地의 鐵路負擔으로함
一、鐵路及旅行社間連絡通信은左와如함
(가)營業 奉天, 山海關間에 旅客을輸送하는 [illegible]
(나)營業
一、直通列車運營에對하야 [illegible]
[illegible] 關北平, 山海關의 兩區間에對하야 同一內容을 [illegible] 하야 [illegible]
도이外의必要에應하야 [illegible] 社間에서別로히規定함

局과協定下에 北平奉天間直通旅客列車의經營으로하는데 列車는四個列車每日北平奉天間一往復하고 奉天으로부터發하는者를「東亞」라는列車號를附하야一個列車는 手荷物車二輛 三等車四輛 食堂車一輛 二等寢臺車一輛 一等展望車一輛의十輛編成으로(當分北平山海關間은一等展望車를連結치안는다)카라-밴드를豫하고 各車輛도同色으로塗한다 一年後에는 全部東方旅行社專用의 新造車의建造가끗나 使用하기로되여잇다 또列車乘務員은 山海關에서交替하는데 旅客은 山海關停車中에 通關을了하기로되여잇다

東方旅行社槪要

【奉天二十八日發聯合】新設된 東方旅行社는 組合組織資本金百萬元(第一回拂込二十五萬元)으로山海關에 本社를두고從員으로서總經理에 中國旅行社副支配人張水淇, 副經理에北寧鐵路局員 平山定齊氏가 就任하엿다 會社는北寧 奉山兩鐵路 [illegible]

▶負擔과保護 (뉴욕타임스紙에서)

注日할外國人의 軍機保護法違反

英米兩國人이그中의過半數

當局은그絕滅을企圖

【東京電話】要塞, 及軍港地帶는軍機保護法違反에서 各地要塞地帶에서는 其保護取締에萬全을期하고잇스나 그러나違反者는相當多數에達함으로 當局에서는今後 其絕滅을期하야 斷然處置할方針이다 어제昭和八年中에要塞地帶法及軍港規及軍機保護法字品港域取締法違反統計를示하면 左와如함

▲犯罪 三二人(內, 外國人六人)
▲非違三六人(內, 外國人六人)으로가장만흔 要塞地帶는

●犯罪

東京	一九(內, 外國人一)
下關	一七(同 一)
由良	二
長崎	六(內, 外國人三)
橫須賀	四(同 一)
舞鶴	
字品	
敎賀	五

●非違

東京	三六(內, 外國人三)
下關	二一
由良	二三(內, 外國人二)
長崎	二八(同 一)
橫須賀	一七(同 一)
舞鶴	一〇
字品	四七
敎賀	三

의數字에達하엿다 其中에 [illegible] 外國人이 [illegible] 英米兩國人이 大半을占하고잇다는것은 時節이時節인만큼 [illegible] 注目되여잇다

關稅調查會 特別委員內定

【電通東京電話】大藏省에서 實施하는 關稅調查及通商擁護法案實施에伴하는 關稅調查會의特別委員을銓衡中이든바 三十日左와如히內定되엿다

貴族院=福本圭三郞 兒玉秀雄 加藤政之助 馬場鍈一
衆議院=加藤鐐五郞 櫻井兵五郞 中村嘉壽(以上政友)中島彌團次(民政)

그리고從來의 常務委員中矢作榮藏氏(死去)와 大竹貫一氏(任期滿了)의後任補充은 左의兩氏로內定하엿다

佐藤寬次 門野重九郞

米銀輸出禁止實施로 銀價昂騰! 昂騰!

倫敦銀塊相場二十一片八分 歐洲大戰爾來最高價

【電通東京電話】合衆國銀輸出禁止令實施를 導火線으로하야 三十日著電의倫敦銀塊時勢는 二十一片八分의一로 昂騰하얏는데 同日朝參集協議한結果同會는 建價를 一圓五十錢引上하야 一圓五十三錢五厘로改訂하얏다 이銀時勢昂騰은 歐洲大戰以來의 最高價를示한것이다 또從來의最高價는本年三月十三日倫敦時勢二十一片十分의三, 水曜會四十九圓四十四錢五厘이다

在外米人所有의 銀買上期待

【華盛頓二十九日發】最近成立한 銀法이 大統領에게 銀을國有로할權限을 與한데 對하야 當地에서는 大統領은現在米國人이 海外에서 所有한銀을一온스五十仙으로買上하고銀의國有化를實施하리라고 期待하고잇다 그리고銀法은銀을 通貨準備의 二割五分까지는 銀으로써 充當할것을 規定하고잇는데 當地에서는 財務當局은銀의通貨使用高를 增加키爲하야一온스一弗二十仙에갓가운高價로買上치안으면 안될때가올것을기다려잘려고 多量의銀을保有하고잇는 事實이잇다

練習艦隊바港入

【電通바타비아卅日發】歐洲로부터本國으로歸航途上에오른日本海軍練習艦隊岩手, 淺間兩艦은 三十日午前九時바타비아에入港投錨하엿고 日蘭會商開催中인此際日本軍艦의 來訪은特히注目을끄고잇다

『루마니아』國에의 日本武器供給說

日蘇離間의無根한報道라고 外務省當局談으로否認

【電通東京電話】最近歐洲方面에서 日蘇關係離間의作爲的報道가 傳하는此際又復歐洲新聞紙上에 日本이루마니아에武器를 供給하고잇다는報道를行하야 日蘇關係에惡印象을與하고잇슴으로 外務省에서는右에關하야 三十日當局談의 形式으로 左와如히發表하엿다 『最近歐洲新聞紙上에 루마니아首府부카레스트新聞에 日本으로부터 同國政府에武器供給, 軍器工場設立을 申請하엿다고報道하고 벨리마벨젠차이冬紙等은 諸論評을加하고잇는데 右는全然事實無根이다』

蘇聯의軍備擴充

國營工場總動員 建艦工作에熱中

航空과思想戰術과併行하야 先進軍需工業追隨

陸軍에서海軍에

最近蘇聯이 발틱艦隊를再建한다는計劃은 各國으로하여금 蘇聯이 海軍에잇서서도 뒤지지안으려는 熱望에서나온것이라하야 그趨移를注目하게하고잇는데 爲先極東防備에 使用키爲하야 潛水艦數隻이크론스타트造船所에서 急速製造中에잇다. 現在海蔘威에는 발서四五隻의 潛水艦이 秘密히 裝置되여잇는바 그中一隻은昨年米國海軍이 布哇를中心으로 大演習을行할時에 潛水艦中의一隻을 秘密히 買收한것이라 한다. 그買受由來는 米國사롬라는 蘇聯通商機關 암톨크社社員안센(表面은 丁抹人 實은 蘇聯人)이 仲介者가되어 흥정한것으로 그潛水艦은大演習中임에도 不拘하고「알류시안」諸島에서千島列島를거처途中에서가대리고잇든 十二隻의 [illegible] 에서 미리積載하엿든重油의補給을맛으면서 無事히海蔘威에入港한것이라한다

◇

露國은日本海戰에서 敗北하고 再次이럴날수업는 致命傷을當하엿스나 最近再次音日과가튼大艦隊를 組織키爲하야 着着其準備를 進行하고잇다 이미海蔘威에는 前述한바와如히 四, 五隻의潛水艦이잇는바此는 일즉발틱造船所에서 英國암스트롱會社의 技師의 監督下에建造하고잇든「숙바」號潛艦을 解體하고 最近流行인 데이젤엔진으로바꾸어 다시 此를潛水艦으로 建造하야 陸路西伯利亞線으로 海蔘威에輸送된것이다

그리고 蘇聯政府는 舍모보造船所에서 河川用砲艦을 數隻新造하야 此를하바롭스크로 搬援하야 黑龍江方面의警備에當케하고잇다

◇

黑龍江沿岸에는 石炭 供給所가 적고 더욱右岸은滿洲國에 屬하는關係上燃料로 揮發油를使用하는데이젤엔진을設備하는것이 가장有效하엿다하여 以前舊名으로보에서 建造한 排水量百九十噸吃水四呎六吋速力十一海浬半의「프리아드」號「코뮤스」號「레닌」號「지리아니」號等 九隻의砲艦이建造되고잇다

此等砲艦의裝備는 百二十미리의砲二門 機關銃四臺를備置하엿다 그밧게일즉露國海軍省에서設計한바와取포트라고稱하는新式艦이 現在使用되여잇다

◇

이新鑑艦은 데이젤엔진을備하야六吋의陸砲四門 三吋野砲三門 機關銃二十臺及野戰鐵道 軌道三露里를搭載하고 海岸에接近하야 陸戰을援護하야 鐵道를敷設할수잇게되엿다 이것은世界大戰當時 이미露國海軍部에서 計劃되엿든것으로現政府가成立된以來 더욱同計劃이 一層發展擴充되엿다한다

뺄틱海造船所는 레닌그라드의 프치로프造兵廠과 協同하야 黑龍江專用의 砲艦及日本海方面의 潛水艦及 巡洋艦을建造하고잇다하나 此에必要한精巧한機械는 主로米國의大工業會社나 스폐리會社等으로부터 買入하고잇다 그러나詳細한것은 全然알수업스나何如튼相當한準備가進行되고잇다는것은 確實하다

◇

最近滿洲事變以來 極東方面에잇서서 蘇聯軍備는 文字그대로長足의進步를遂하엿다 일즉米國의元陸軍將校이든 쿠퍼少佐는 世界大戰當時 東部西伯利亞의戰線에서 經驗이잇고 東洋事情에도精通하고 또近代戰爭에도 造詣가 깁흠으로 二, 三年前 蘇聯에招聘되여 연合時極東의將來에關하야 重要한進言을 蘇聯에行하엿다고傳한다

◇

蘇聯은 中央亞細亞에 鐵道를敷設하고航空路를開設하고 中國邊境에 共產國을樹立하야 着着極東政策實現에 邁進하고잇다

此等計劃은 思想的戰術을利用하는同時에 世界各國의軍需工業의粹를모아 尨大한資源을利用하야 國營의全軍需工業을動員하는것으로 其成果를收得하려고努力하고잇다

上記한바와如히蘇聯은 바야흐로軍備擴充에 白熱化하고잇는바 其建設時代에는 英國의비커스와암스트롱 佛國의슈나이다 獨逸系의 瑞典의보파스와 체코슬로바키아의 스코다와米國의 베들레헴等의列强의各軍需品會社가 蘇聯을目標로國際的武器貿出戰을 展開하며섯스나 只今은主로自國의힘으로도 그것을 成就하려고하고잇다

今日의本紙 特刊外十二面

羅子溝反滿、共產軍 百餘名被殺、遂退却
二部의殘部隊가猛烈히抵抗
滿軍과繼續交戰中

【電通間島卅日發】 라자구(羅子溝)를 점령한공산군은 이십구일정오부터 응원군과 만주국군의 맹렬한공격으로 려단장등 수령다섯명과 병사팔십구명의시체를 남겨두고일부는 퇴각하고 일부는 다시 저항하야 목하격전중이다

【電通間島卅日發】 라자구수비대관내 만주국군팔십명은 공산군을 추격하고저 전진중이든바 이십구일 오후일곱시에 공산군을 맛내어 교전한결과 두목이하 이십칠명을 쏘아죽엿다

【電通間島三十日發】 이번에래습한 반만군의 총지휘자는 왕민국(民國)시대의 련장(連長)으로 현재구국군부사령이홍긴영(洪疫英)이다 총세일천삼백명으로 그주력은 이십구일회피권자(樺皮甸子)에 향하야 응원대를 공격하랴고 계획중이다

人夫에게亂暴한 監督輩團束嚴達
近者에礦山、其他工事場에 事故頻發로險惡化

최근광산 토목공사장등에서 인부감독이 인부를구타하며 또는 총살하는등사건이 빈발하야 쟁의가 빈발하며도이와가티 감독자가 인부를 구타치사식히거나 총살하는사건은엄벌범죄와도섬질이달라 사태를중대화식히며 자칫하면 모종불온행동화할념려가 잇다하야 경무국에서는각광산공사장의 당업자에 엄중한 경고를하여 취체를 엄중히하라고각도에대하야엄달하엿다한다 특히 함경남북도와평안북도 등은각종개척사업철도 부설과 광산등 공사장이 매우만어이지방에는특히권괴와가튼리유로쟁의를 이르키는일이 자조잇슴으로도 이런지방에 대하야는 경무국에서 당업자에게도직접경고를 발하리라한다

驅逐艦衝突은 濃霧로不可抗力
海軍省當局의觀測

【電通東京電話】 「심설」(深雪)「이(電)」량군함의충돌진상에관하야 해군성에서는 즉시사문위원회를 조직하야 충돌의원인과 사정을 조사연구키로된바 지금까지의 공보에의하면 동해상은 방음비상한 농무시긔가되여 피해중의 긔선(汽船)도위험신호의 긔적을울리며 위험예방을하고잇는데 연습중에는 하등위험예방의 방책이업서서 이번의사고도 이농무습래로 인한것으로 전혀불가항력으로 보고잇다

死傷者判明

【電通佐世保三十日發】 십삼일오후 한시까지 좌세보진수부(佐世保鎭守府)에서판명된사상자와 행방불명자는 아래와갓다

▲負傷者 二等水兵杉原忠一 三等水兵木村高四郎 三等機關兵北中勘(以上電)

▲死亡者 二等機關兵福島太郎 三等機關兵福島福太郎 三等主計兵白井秀太郎 同保坂幸雄(以上深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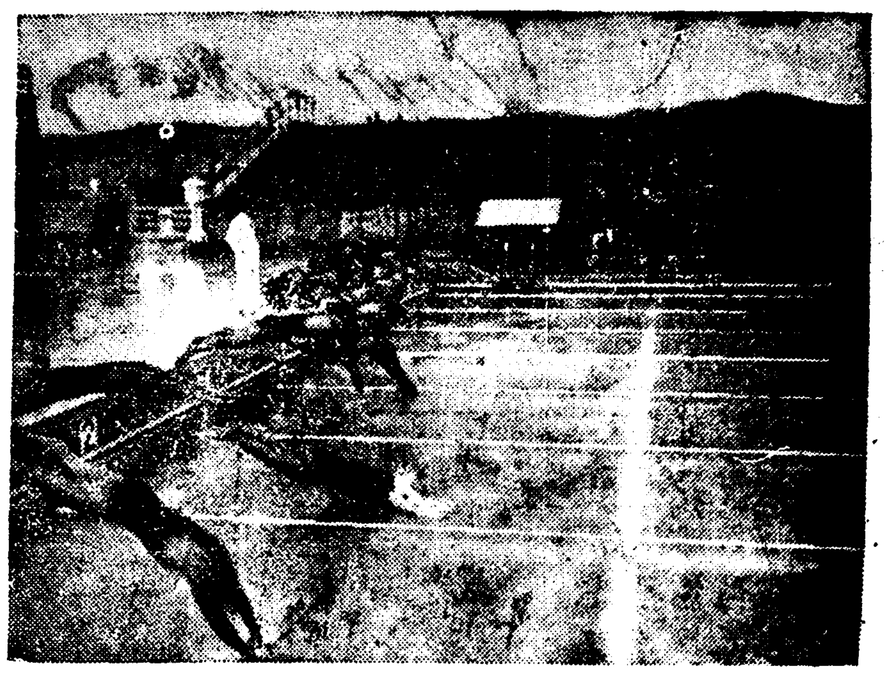
▲行方不明 三等水兵渡邊順之助 三等主計兵有木正規(以下深雪)

坐礁한龍鳳丸 機關室에沈水

【滿局局看電】 목포(木浦)부근에서 좌초되여잇든룡봉환(龍鳳丸)은이십구일오후 열시에이르러드듸여 기관실에 물이드러오기시작하야 무선전신은 그만아주불통이 되여버리고 갑작히구할수업는 위험에 직면하여곳집을 바다에버리기 시작하엿다 승조원오십명중 삼십오명은 구조선 유첩환(裕捷丸)에 옴기고 남어지십오명은 부근섬에 상륙시키는중이다 통신은 겨우감시중인 대련기선의「사이보ㅣ」환과우첩환의 무선전신으로 연락하고잇다 승조원은 삼십일안으로 사이부환에수용할터이라한다 목포로부터경비선금강환(金剛丸)도역시 오후열시경에현장에도착하야 감시중이나 농무는여전하고 물결이거츠러서 구조가극히곤난하다고한다

七發島에無電設備

조선제일의 등대인 전라남도 다도해중의 일고도 칠발도(七發島)등대에 금번 무선전신설비를 하게되여 라친국(羅針局)과 및표식국(標識局)을 두고 무선방위신호소(無線方位信號所)로 할 방침으로서 느저도명년삼월하순까지는 준공될모양이다



京城府營水泳場落成盛況

총공비륙만여원의 거비를드려건설한경성부영수영장락성식은 작삼십일오후한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오백여명의 관계자가참집하가운데성대히 거행되엿다 곳식이나자 일본조선수들의경영시범(競泳示範)등이잇섯다 (사진은당일국제올림픽선수들의스타-트광경)

赤色判事判決
一審보다는輕하게

【電通東京電話】 일본공산당의 확대운동에 참가하야신성한 사법부(司法部)의 창화를 기회한 원동경지방재판소 판사미기송(尾崎陞)등은 일심재판소에서 올금히안데도 불구하고 일제히 불복공소를 신립한후 동경공소원(東京控訴院)소중(小中)재판장주심하에 심리를 계속하든중 삼십일 오전열한시 다음과가티 일심보다 모두가 벼운판결을언도하엿다

懲役八年(前審懲役十年) 元東京地方裁判所 豫審部書記 西館仁(三三)

懲役六年(前審八年) 元東京地方裁判所 民事部判事 尾崎陞(三一)

懲役三年(前審五年) 元札幌地方裁判所 民事部判事 瀧內禮作(三五)

懲役三年(前審五年) 元長崎地方裁判所 民事部判事 福田力之助(三六)

懲役二年(前審三年) 元山形地方裁判所 鶴岡支部判事 豊(?)辰姿之助(三二)

그러고미기 등내는 각각상백일위성은이백일 복권은 구십일식 미결을통산한다

仁川三千餘土幕民 霖雨로飢餓彷徨
松峴、松林、桃山一帶에잇서
生途漠然情狀可憐

인천시내송현(松峴)송림(松林)도산(桃山)상동리를통하야 산재하야 잇는토막민은 그총계가 약팔백호에 삼천여명이라는데 그들의 직업은 대개가 부두(埠頭)에 흐터진 곡물(穀物)을쓰러가거나 그러치안으면 일정한직업이업시 지게를저서 그날그날을 연명하는형편이다 수일래로 나리는장마로 인하야 마당쓰레기줏자업슴으로 연명할 도리가업서 그들의태반은 기근에울고잇다한다 평소에도 자양이적은 대만미(臺灣米)나마 제대로 먹지못하야 영양부족으로 누러케 든 그들에게 도한기근이닥처오매 그저상은 참아볼수업다하며 그중에도 병석에잇는로인과 임산부 아동들의 참상은 이 더욱이 말이아니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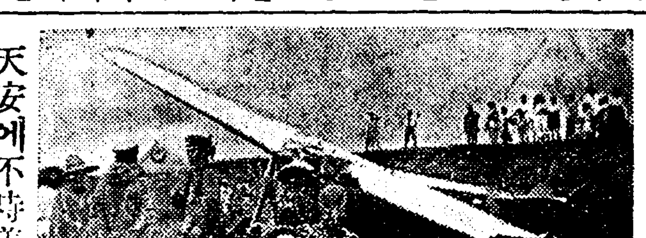
視力은斷然優秀나 營養狀態는甚不良
教育잘된兒童이一割七分
市內二萬兒童健康打診

경성부학무과에서 지난사월신학긔초에 시내각보통학교와 심상소학교의 아동신체 발육상황을검사한바에의하면 보통학교아동은 남자일만이천 삼백칠십륙명을검사한속에서갑(甲)이이천삼십칠인이고을(乙)이륙천구백칠십일인이고병(丙)이삼천삼백륙십칠명에서 발육잘된아동이 일할륙분강(强)박게 안되고녀자는 칠천오백구십일명을 검사한속에 갑이일천 삼백십사인이고 을이사천삼백 구십륙인이고 병이일천팔백 팔십일명으로서 발육잘된아동이 일할칠분강(强)박게아니된다고한다

한편심상소학교아동은남자칠천일백삼십오인을 검사한중에서 갑이일천팔백삼십일인 이고을이사천 일백십오인이며 병이일천일백 팔십오인으로 발육된아동이 이할륙분강이고녀자가 륙천팔백 구십칠명을 검사한중에 갑이이천십륙인이고 을이삼천팔백 십오인이며 병이일천륙십륙인으로 발육잘된 아동이이할구분강이엇다한다 종합하야보면 일반적으로 발육은 남자보다 녀자가더잘되고 보통학교아동측 조선아이는 영양불량(營養不良)이 심하야 발육이대개불량하다고한다

그대신 시력(視力)에 잇서서는 심상소학교아동은 남자가근시(近視)가 이할강이고 녀자는 이할사분 약(弱)인데 보통학교조선아동은 남자에 근시가구분강이고 녀자는 일할오분이어서 보통학교아동들은 발육이나 은대신 시력이 조선아동만못하다한다 그런데여긔서 한가지자미잇는현상은 동등한 근시는남자보다녀자가만흔것이라한다

우에말한 영양상태를 수사자적으로발키면 보통학교 아동은남자중에 영양공급이 조흔아동이 일할팔분강이고 녀자는 이할오분강이며 심상소학교 아동은남자가 삼할이분강이고 녀자가삼할구분강인데 그까닭인즉 조선아동들은 대개가정이 경제적으로윤택치 못하야 음식물의공급이시원치못한까닭이라고한다



天安에不時着陸한旅客機 (작일기사참조)

보자든놈반지 가지고도망질

이십구일오전아홉시경에시내서린동(瑞麟洞)오십구번지강씨(姜氏)(四四)는 어멈을다리고 관철동(貫鐵洞)에잇는그딸을차저가든길에 엇던사람이 조차와서다려다가 준다고하면서 따라오다가 강씨의손에끼인 일백이십원가량의 금반지를 보자고하드니그만 빼아서가지고 다라낫다 강씨는 곳부근종로(鍾路)일정목파출소에 고발하야 범인은 어렵지안케 체포하엿는데 그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洪川邑)오십일번지에 본적을둔 주소부정의리종하(李鍾夏)(四四)로판명되엿다한다

◇……강변에서 씨서내는 당철의 채소

二千百餘町步에 補償은十一萬圓
總督府의技師調査內容으로
近日決定支拂豫定

락동강(洛東江)하류의맥작피해의국고보상 문제는 과보한바와가티총독부에서 천삼만원 이내의한도로 국고보상금을 지출하기로내정하고 총독부에서는 본간(本間)긔사가 현장에 출장하야재조사를 하기로되야 그간경남도청과 다시조사를 하엿섯는데 경남도청에서 다시조사 하야 삼십일에 총독부에사정을 요구하여왓다 이에의하면 락동강일천식공사에 의하야피해를 당한 면적은 이천일백오십 여정보이고이에대한 국고보상금은 십일만이천여원으로 이것은 과왕오개년간의 맥작실수고를 표준으로반당(反當)수확량을산정한결과구두(斗)삼승(升)내지일석삼두입으로 이것을 평균하여 반당수확고를산출하고최근시가한섬에 칠원을 계산한것이라한다

그리하야 총독부에서는 이보고를 중심으로총독부에서 직접조사한것을 참작하여 이삼일내로 최후적결정을한후 즉시피해농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되엿다한다

警官殺害한拳銃犯 徐元俊等豫審終結
昨年六月黃、平兩道出沒橫行
平壤法院公判廻附

【平壤支局電話】 작년유월초순에 평남지방일대를 소란케한 만주서들어온 공산당원 서원준(徐元俊)안영준(安永俊)량명은 그동안 평양지방법원 예심계에서 취조중이든바 체포된지 만일년만에 삼십일에 예심이종결되는동시에 유죄로 결정되어그 법원공판으로 넘기엇다 그들누명은 공산주의운동의 사명을띄고 평양에잠입하엿다가작년유월삼일에 평양경찰서원에게 발각되어 경관에게 권총을 쏘고도주하엿다가 안영준은 그이튼날에경성에서 체포되고 서원준은절동가튼경계망을교묘히피하야도주해다니다가 그달십일에는 황해도봉산군서종면(鳳山郡西鐘面)주재소순사부장에게 들키게되어 가젓든 권총으로 그를쏘아죽여버리고동리사람들의자전거를빼아서타고 또다시 도주하엿다가 결국그달십륙일밤에피신도주한 지십삼일만에 평원군 동송면청룡리(平原郡東松面靑龍里) 주막집에서 잠을자고잇다가 면주재소 순사들에게 발각체포되엿든것이다

巡查부처준다고 百八十圓詐取
犯人은强盜前科者

【新義州】 지난이십팔일신의주경찰서법게에서는 부내미륵동(彌勒洞)방면에 잠복하고잇는 귀성군관서면조악동(龜城郡館西面造岳洞)에잇는 림정무(林正武)(二四)를 검거하야 엄중취조중이라는데 그내용은 권괴림정무란자는 강도전과일범으로 평소부터 소행이부정한자로서 지난이십이 삼량일간 평북경찰부에서 고시한 순사시험에 응시코저 삭주군 외남면은창동하(朔州郡外南面銀倉洞)구장최주하(崔周河)(二三)와 가튼동리에사는 리윤문(李允文)(二三)등 두사람이지원하것을유일한긔회로나는 본도 권산업과장으로잇던 리방협(李芳協)씨와 친교가매우깁흔데 그네들두사람을 경찰당국에잘교섭하여 순사시험에 합격되게 하여줄터이니 운동비를내라하야 최주하에게서 일백원리운문에게서 팔십원을 바더가지고 종적을감초의 버렷다가 그가티체포되것이라한다

北栗의端午

재녕군남지리(載寧郡南芝里)공명학교(共明學校) 교정에서열린단오일의 재령지방 연합의씨름 경기는 수천군중이 모히여 수백종의 경긔가잇슨후 무사폐회 하엿다는바 대회임원은아래와갓다한다

◇會長林在鎬 副會長金喜興

蓄音機를竊取
戀愛에精神팔려
罪의길에도가지가지

정은들고 돈이업서 마춤절도까지하다가 경찰의손에 잡히가엽손험은 정원이잇다 ‖부내종로(鍾路)사정목일백오십번지라남만(羅南萬)(三二)은 우연히 금년봄창경원에 벗꼿이 어우러져피엿슬때에 그곳에 놀러갓다가서「카페ㅣ미인좌(美人座)」녀급인화자(花子)(二〇)를 맛나게되야 서로사랑을 주고바더 이래종로사정목일백십오번지에사랑의옹을매고 가티사러오든중 원래방종을밧는 그로서는 도저히호화로운생활을 계속할수업서 궁한나머지에 이십칠일 오전세시경 그가고용하고잇는 종로이정목 종로악긔점에서 시가오십원짜리축음긔를 비아녹음기한대를 훔처다가 이십구일 오후두시경 종로오정목 공익질옥(公益質屋)으로전당잡히러갓다가 마츰 그곳에 와서잇든 동대문서원에게체포되야 방금그서에서 엄중취조를밧는중이라한다

陸上競技大會
西朝鮮中等校 新義州高普優勝

【平壤】 제삼회서조선남자중등학교 륙상경기대회는 이십사일오전여덟시 삼십분부터 평양부내긔림리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엿섯는데 참가팀은 아홉학교 이백여명선수의 출전으로서 황을이루엇스며 명예의 우승은 초진의신의주고보(新義州高普)군이획득하엿다 이날의 성적을표시하면다음과갓다

▲百米決勝 一着禹蓬(平高) 二着金克煥(新高) 三着金龍燮(光高)
▲二百米決勝 一着禹蓬(平高) 二着金克煥(新高) 三着高井(平中)
▲四百米決勝 一着金賢玉(新高) 二着金克煥(新高) 三着鮮于鐵(平高)
▲八百米決勝 一着崔君實(新高) 二着文雄任(平農) 三着鮮于根(平農)
▲千五百米決勝 一着尹光鉉(新高) 二着洪君實(新高) 三着吳海彥(沙農)
▲八百米리레이決勝 一着新高 二着平高 三着平中
▲千六百米리레이決勝 一着新高 二着平高 三着平中
▲走高跳決勝 一等盧鎭仁(平高) 二等卯野木(平商) 金鉉(平中)
▲走幅跳決勝 一等盧鎭仁(平高) 二等口浦(平中) 三等河野(平師)
▲投砲丸決勝 一等金亨用(新高) 二等韓任燁(新高) 三等塚田(鎭商)
▲投圓盤決勝 一等大坪(平中) 二等塚田(鎭商) 三等韓任燁(新高)
▲投槍決勝 一等塚田(鎭商) 二等森本(鎭商) 三等大坪(平中)
▲三段跳決勝 一等羅約成(光高) 二等卯野木(平商) 三等金炳俊(平師)
▲棒高跳決勝 一等盧鎭仁(平高) 二等大坪(平中) 三等朱浣(新高)

籠球協會主催의 夏期籠球講習
七月廿一日부터一週間

朝鮮體育會 朝鮮籠球協會共同主催의第三回夏期籠球講習會는 (朝鮮中央日報社後援)來七月廿一日부터 二十七日까지一週日間(場所未定)開催할터이라는데 指導者는 折井, 槭威등이라하며 參加希望者는 會費壹圓(同協會員은五十錢)을 添付하야 七月二十日까지 鍾路一丁目四六同協會事務所로 申込하기를바란다고한다 定員은 男女百名이요 講習科目은 基本技術 攻防術, 팀編成法, 指導法, 持殊戰術, 審判法, 記錄法, 計時法 規則解釋 (特別講義도 잇슴)等이라한다

無産兒童爲해 無料夜學新設
仁明學院에서

【仁川】 인천시내송현(松峴)리에잇는 인명(仁明)학원에서는각방으로 아동교육을 위하야로력하는중 더욱이근일에는 학령초과 아동이답지하야 교실이협착함으로 현재이부 교수를하고잇다는데 동교직원일동은 더욱분발하야 곤란함도 무릅쓰고무산아동을위하야 무료 야학부를신설하고 래칠월오일까지 아동모집중이다 발서부터 정원이초과되야 각방으로 로력중이나 전부 수용하기가 극난인모양이므로 일반은이에게대한 독지가가잇기를바란다한다

日曜講話

◇三淸洞教會 午前十一時 未定 / 午後八時半 末日에哀哭의宣言 張榮道牧師

◇勝洞教會 午前十一時 「참信者의目標」 따오스博士 / 午後八時 金世衍氏

◇貞洞教會 上午十一時 「朝鮮教會의未來」 洪秉璇氏 / 新禱의生活 / 下午八時 基督教의社會的使命 崔萬熙氏

◇倫洞教會 午前十一時 栗彬煥氏 / 恩惠中에서沐浴하라 李瀛周氏 / 午後八時三〇分 엡웟靑年會獻身禮拜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復興禮拜」 金希斗牧師 / 午後八時 「復興會」 金希斗牧師

◇觀洞禪庵 午前十一時 午後八時 現靈不動의修養 金大隆師

◇壽松洞覺皇寺 午前十一時 人間釋迦의苦行時代 朴允進氏

◇南大門外教會 午後十一時 사람이무엇으로사나? 車光錫牧師

◇向上會館 午後八時半 勉勵會獻心禮拜 金致信氏 / 午後八時 밋음의勝利 李智光氏

月刊 아이생활 七月號

「아이!또나왓네「아이생활」七月號!○참재밋세」

그림 漫畫 「돌이의一代記」 尹錫元
조선에처음선교사●에그시언더라●李克輝
헛손가다리 ●독자의입구
曲譜 「文字普及歌」(朝鮮日報社懸賞當選) 「복해는무엇인가?」 具王三
童話 못난이 田榮澤
童話 정직한소년 金翔濟
童話 이상한행운 崔仁化
名話 캔뉴트와월리암왕자 金根
常識 祖國과國家에대하야 咸大勳
歷史 조선역사두본 金允經
地理 조선지리두본 李允宰
風俗 제주도여자 李殷相
生理 간장에대하야 李容高
科學 전기 빨래 崔奎南
漫畫 무쇠의모험 林鴻恩
冒險小說 小英雄 方仁根
小說 술래자의가는길 班禹巨
童話 할머니열정 金海午
小說 웃은지갑 丁友海
讀者文藝欄 朴勝谿
郊外 「잠실린」 全鳳傳
節制 술과담수 한잔의마리돈 毛麒允
아가차지 金○吉
卓上靑玉時計懸賞讀者大募集
十錢•一年一圓•半年五十五錢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
支局大募集

古金 石金 高價買入
京城府明治町 株式會社 京城德力
平壤府旭町二三 平壤出張所

登錄商標 선북거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所(電話光化門二一五九)

男生殖器 衰弱 物理作用 强健發育
醫學博士六十名實驗證明推獎 日、獨、佛專賣特許 名譽金牌受領
ホリック眞空水治器

人生에게가장 幸福과悲哀를左右하는 生殖器發育不全弱小한데, 從來의內服藥療法은 開發이되여더되고, 效果가안보이며, 劃時代的으로 人生의福祉를開拓하는 物療法界의神聖한發明品으로서 海外에까지 名聲이높은 本器는, 理學的技術巧妙의極致며, 形狀은적고 輕便하나, 效力은매우크다. 一日一回式自己가 使用하야, 局部에直接物理療法을行하면 目前에곳驚嘆할 眞空吸引力을生하야 漸次發育促進의現象이 本器에들어나는同時에 神秘言外의效能을 作用에依하야 局部神經衰弱을 復活하고, 手淫過房의害 遺精 夢精 早漏 陰萎 局部彎曲을 回復하며, 機能이 점점健全히되여 弱小도强健發育하야 男子의資格을完成하고, 此를根本的基調로서 日常의生活氣分까지 快活히되고, 腦力記憶力을增進하야 男性의特徵인 進取의男氣가 奮發心을나게하고, 前途에 幸福成功의運命이 열니오는것임 實驗界의好評을보아 速히이機會를 일치말고 實驗하시요 現品은 說明書를添付하야 匿名으로密送함 代金引換小包는 送料十五錢增

受領名譽金牌

非賣品 無代進呈 ◇購入說明書 葉書로申込하시오 (匿名郵送)

包莖 專賣特許 ホリック包莖安全器 金四圓 送料內地十五錢 朝鮮四十二錢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六圓 送料內地三十錢 朝鮮七十錢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 東京新療法研究所 振替東京七七三九番
그짓것잇소 ホリック文字든(마ーク)에注意합시요

國境警察隊組織 警輸者警戒森嚴

豆滿江流域上下三十里에 三個所監視所를新設

【會寧】 국경일대의 밀수입은 [illegible] 처의 포목과 잡화 일용잡화등이 두만강으로서 밀수입하야 오는바 중국어로밀매입하야 세관리와 밀수업군과는 생명을 걸고하고 피차에 참담한경우까지 연출하여 오는바 이를 제지하기위하야 만주국으로부터 오십여명으로 조직된 국경경찰대(國境警察隊)가 파견되여 오게되여 방금 도문신구시가(新舊市街)와 한가운데에는 국경경찰대 가사무소(假事務所)를 두고 까지설치되엿다 면옥하 두만강의상하 류역(流域) 상리에는 삼개소의 감시소(監視所)를 공비 일만륙천원으로 금번 구월안으로 준공을 하리라하며 주야 교번하야 두만강에 물샐틈 업는 엄중한 경계를하게 된다는바 국경경찰은 세관리의 행동을 점엄하게 되다는데 이로서 국경경찰대 총지휘관으로는 군대위인 도문헌병대장인 서영창치(西永彰治)씨가 신임으로 총지휘관의 겸임을 할터이라한다 따라 일선, 만큼으로서 경찰대의 취지문을 일만장이나 인쇄하야 산포하엿다한다 는국에달하얏다고한다

驪州市場移轉 工事着着進行

【驪州】 작년이래로문제되여 오든 려주의시장이전계획은 일부시민의 맹렬한반대운동이 잇섯스나 결국일축해버리고 주내면(州內面)당국의 계획대로 주내면하리(州內里下里)로부터 이전하게되여 지난 륙월중순부터 공사에착수하야 방금도로를 개착중인바 이것이 완성되는날에는 정거여하는 등문제로하고 시장으로서의 면목은 일신하여지리라한다

進鳳面所移轉 位置問題重大化 面議通過案을一部反對

【金堤】 김제군진봉면(進鳳面)은 면적이 동서삼리 남북이 리림잇 인구가 일만일천칠백여명이나되고 황해(黃海)를 향한 평야부로서 김제군내에서는 제일큰면이다 그런데 면사무소위치는 진봉면의한구석인 가실리(佳實里)에 잇섯는데 사무소의 협착 도중앙지가아님을 원인으로 신축함과동시에 면사무의위치도 옴기리라는바 지난오월의 면협의원회에서는 면내의 중앙지는아니지만 현재 보통학교가 잇는곳이오 또교통의 편의상으로보아 상궐리(上闕里)로 이전안이 통과되엿든바 고사(古沙)심포(深浦)등 일부면민은 중앙지가아니면 절대반대한다는 귀치를들고 협의원회의 통과안을 반대하는일방 도당국과 군당국에 오백여명이 련서날인하야 진정서까지 제출하엿다는바 방금 후보지로 선정되엿든곳은 관고(關皐)상궐(上闕)종야(宗野)중앙(中央)사개리인데 관고리와 상궐리는 중앙지가아니오 또일부면민들의 반대하는곳이니 실현되기어려우리라하며 면내의중앙지는 오즉 중앙리(中央里)이나 이곳은 교통의 불편이잇서서 역시 어렵고 중앙리에서 오륙정밧게 되지안는 종야리로 결정되리라는것이 일반의상식적판단으로 되여잇다는데 당국의심산은 어떠한지 비밀에부침으로 할수업스나 면민의주시

醴泉의宿題 電氣架設實現 今年內로點燈

【醴泉】 다년간숙제로나려오든 례천전등문제(醴泉電燈架設問題)를 긔어히실현시키기위하야 당지유지들이묘히여 례천전긔주식회사(醴泉電氣株式會社)를조직키로하고 그허가를체신당국에 제출하엿든바 그후이문제를 하로밧비실현 시키기위하야 진정위원삼인을 선정하야 얼마전에파견한일이잇섯는데그 결과는어떠하다하면 회사의해답은 견과동제상 승인치아니하야 칭으로도 동금기타 지방민의동리상 동제가유리함으로 례천서에 가를 제출한것으로파하고 대구대흥전긔회사(大邱大興電氣會社)에서 출원하면 금번내로점동케하겟다는 당국의 언명이잇슴으로 당지에서 제출한것은취하하는동시에 새로 대구전긔회사에서 제출하엿다는데 일반은 지방의 중대문제이니만치 그후진전을주시하는중이라한다

千佛山事件 三名全部出獄

【新興】 재작년십일월하순경 함남신흥군원평면천불산(新興郡元平面千佛山)에잇는 조선광업개발주식회사 천불산금광(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千佛山金鑛)을 주심으로 다수 종업원을독서회조직의혐의로검거하야 그중 림무산(林茂山)홍제효(洪濟孝)정중선(鄭重善)삼명은 유죄로 결정되여 함흥지방법원에서 각기징역삼개월식의 언도를밧고 함흥형무소에서 복역하든중 [illegible] 십일의 형기를맛치고 지난십구일 세사람이 모다출옥하엿는데 정군은 그고향인 경남으로가고 그외두사람은 모다 북청출신에 저류중이라고만한다

汽車一日間不通 豪雨에山崩하야 咸興新興鐵道에서

【咸興】 어제구일밤에쏘다진 맹렬한 폭우로인하여 함남신흥철도(新興鐵道)함북선(咸北線) 도안(道安)원풍(元豊)양역간의 산이문허저 선로를덥허서 기차는일일간운행불통되엿다고한다

普校位置에關聯한 殴打負傷의告訴 鎭北面民間에不祥事

【馬山】 창원군 진북면(昌原郡鎭北面)에서는 공립보통학교 문제로 말미아마 구타부상사건이 이러나서 마산경찰서에 고발한사실이잇는데 그자세한 내용은 소화사년중 동면보교 설치당시에 지산리(智山里)례곡리(禮谷里)등 삼부락에서는 보교장소를 지산리에세우라고 맹렬한운동을 하여오든중 지산리 김영배는 리상의실현을장담하고 권리삼부락을 대표하야 부락민간을 통해운동자금을밧고 도부락민들에게보인(連帶保人)까지세워가며 일하얏스나 결국은 반대운동을 하여왓다는것이 폭로되여 동면민은 분개함을참지못하야 이문제가 우금오년동안이나 끄러오든중 최근에와서 부산지방법원(釜山地方法院)에서는 화해를 권고하엿는데 김영배(金英培)의아들 김점룡(金點龍)(二六)은 권리삼부락민에대하야 지불명령을 발하고 강제차압을집행하엿는고로 그리유를 질문하러간 리만조(李萬祚)(假名)를구타하엿슴으로 피해자는 마산경찰서에 고소한것인데 과거오년동안에 싸인 진북면 공보교의비밀문제와 아울러 면민의 룩상사가 폭로되엿다고 한다

朝、滿男女— 懸賞雄辯大會 申請通知六百通發送

【安東縣】 귀보=안동현조선인청년회에서는 오는팔월일이 삼일량일간 주최하는 조만남녀 현상웅변대회에서 성황일우기위하야 지난이십오일 오후팔시본보지국내에서 준비위원십인이모히여 조선급만주에잇는 륙백단체에 웅변대회 참가신청서(參加申請書)를발송식히엿다한다

多年宿望이던 興南普校落成 廿八日에開校式

【興南】 흥남공립보통학교는 오랫동안을두고 관민유지 수백명이 힘을합하야 과성에열렬하야 오든바 지난오월에 흥남중천리(中天里)에 [illegible] 건축하고 아동이백삼십여명으로 교수케하다가 지난이십팔일 락성식겸개교식을 관민유지급 학부형이백여명이 회합하야 성대히거행하고 여흥으로 동교아동 소운회까지잇서서 전여관중 환호리에 무사이산회하엿다

元山海星普校 勤續敎員褒彰

【元山】 원산해성보통학교후원회(海星普校後援會)에서는 지난이십사일 경시반 동교강당내에서 십년동안을 하로가티 불피풍우하고 어린이교육을 위하야 심혈을다한 동교교원 암옥도메(岩屋ドメ)녀사의 십주년근속표창식을 각계인사의 참석리에 거행하야 오후두시경 성황리에 의축하엿어 성대히 열리엇다고한다

高昌漢氏喜捨로 橫城公會堂新築 花園幼園園舍로도兼用

【橫城】 대동상업학교교주고창한(高昌漢)(六三)씨는 횡성출생으로 횡성에일반민중의 집합에 편의한긔관이업는것과 제이세국민을 길너내는 당지화성유치원(花城幼稚園)이 원사가 업는것을 큰유감으로생각하고 건거고씨는 팔천원의토지를 희사한바 리사회에서는 오래동안고려하여오든중 륙월 이십팔일에 리사회를열고 결정한바에 의하면 횡성공회당을건설하야 화성유치원(花城幼稚園)까지 겸용하기로 되엿다는데 건평(建坪) 칠십평으로 장대한 신문화건설의건당을 보게된바 현횡성청년회관긔지를 부지로하야 공사에 착수키로되엿다고한다

本報讀者割引

【黑橋】 평양에서 흥행을맛치고 지난이십칠일에 흑교에도착한 태전곡마단(太田曲馬團)은 이십팔일부터 일주일간 흑교우시장에서 흥행하는중인데 특히 본보흑교지국독자에 한하야는 각등에 삼할인을 할터이라는바 독자여러분은 지국에서발부하는 독자우대권을 애용해주기를 바란다고한다

七十老婆自殺

【馬山】 이십구일오후다섯시경 경남구마산수정(舊馬山壽町)매축지압에서 무신자살한 시체를 발견하고 곳관정파출소에 고발하야 현장을 조사하여본 결과 칠십여세되여보이는 로파로판명되엿는데 주소성명과 원인등은 알수업슴으로 오전열시경에 경관의책임으로 가매장하엿는데 조사한결과에 의하면 주소를명인 겸인곳하며 년령이칠십여세나되엿는만큼 확실한 자살인지도모를것이라고한다

平壤府外土地熱과 뿌로커의橫行

【平壤】 평양부외의토지는날이 가도 지가(地價)가폭등하고잇서서 각방면에서 경계하고잇는데 최근의상황을 본다면 계약금만치르고는 매도도 지불하기전 다른곳에 팔곳을물색하는「뿌로커―」등의 발호를 긔간내에 취인끈난에빠저 계약금을 실권당하는 폐가허다하며만여 만흔피해를 당하는사람까지 속출하는 현상이며 동시에급격한 반동(反動)도 생기는터임으로 경계를요하는터이라한다

相互親睦을目標 扶安記團創立

【扶安】 부안에서는 이십륙일오후오시에 전북일보부안지국 장소에서 부안긔자단을 창립하얏는바 강령과선임된위원은 아래와 갓다한다

◇綱領

一、本團은 言論機關의使命과 權益을期함

一、本團은 團員의相互親睦을 期하기로함

◇任員 委員長 辛鶴奎(中央) 委員 金俊植(東亞) 同 李[illegible](朝鮮) 同 李[illegible](朝鮮) 書記 朴炳吉(全北)

昭和水組區內 四十餘件小水利 道當局은今後抑壓方針

【平壤】 동양일(東洋一)을꿈꾸든 소화수리조합의 몽리구역이되여잇든 평원(平原)안주(安州)의양평양에는 소규모의수리사업이 맹창하여옴이 사십여건이나 도농무과수리계에 제출되여잇다 이출원의 대부분이고제양수(揚水)로서 도당국에서는 압방으로 소화수조의재실현을몽상하면서 발동긔(發動機)사용과 하천사용(河川使用)에 대하여 금번만의가나부인을하고 금후부터는 엄중처리하기로 되여 직접내지간접으로 개인경영의소수리사업에 억압을 가하기로되엿는데 지금까지의출원면적은 실로일천여정보에 달하여잇다한다

疾走車를追跡 密航뿌로―카 一團五名을一網打盡

【釜山】 이십팔일오후삼시경 부산부내도정(中島町)거리를 속력을내여 다라나는 수대의도락크자동차가 지나가는것을 마침바로보든 부산서암전(岩田)사법주임은 즉시형사대를 호령하야 수대의자동차로 추격하엿든바 동래군사하면다대포(東萊郡沙下面多大浦)해안에서 비스늘쁜이라동선에 쪽심오명의 로동자를 밀항하랴는 것을발견하야 [illegible] 김유금(金有今)(三○) 범일정(凡一町)김[illegible] 신정(大新町)신두생(辛斗生)(三○) 김성일(金性一)(三○)의 두명을 체포하엿다는데 밀항선과 긔구일체를 압수하개가를 부르면서 밀동선을 림하야도라왓다 하며 뿌로―커들은 이들륙십명의 밀항로동자에게 수수료를 한사람에게 칠원내지 십원씩을바다먹엇는데 밀동선의선장과 기관장등도공범자로인치하야 방금엄중취조중이라한다

代表만解雇當해 煽動者는反動就業 龜山會社尙州蠶種製造場의 龍頭蛇尾의罷業計劃

【尙州】 경북상주읍내락양리(洛陽里)에잇는 구산잠종주식회사상주잠종제조장(龜山蠶種株式會社尙州蠶種製造場)에서는 공장이 금년에처음 설립되얏는데 지난이십오일 오후륙시에 녀직공부가 공장부근에 모히여 로임이일일 최상이삼이전、최하십륙칠전이라 오전륙시에 취업하야 오후륙시에 돌아가는데 현재모집으로는데 비하야너무나헐하니 로임을 올녀주지아니하거든 동맹휴업을하자고 일부가선동하야 대표수명을 선거하야 공장장(場長)에게 교섭키로하고 각각집으로 돌아가고 권리대표가 장장에게 교섭하얏스나 뜻을이루지못하고 이십륙일 아침에 동맹파업을 하랴다가 구직공이 모다취업하고 권리대표된팔명만 해고를함으로 대표들은선동자를 내여달라고 입시야단이낫다는데 방문한 긔자에게 장장(場長)은다음과갓치말하얏다

「대표、팔명에게는 미안합니다 권리대표도 다른사람의 선동인것을 잘압니다 선동자가모다취업하고자긔들만이해고를 당하얏스니분하야서그럴것입니다 공장은지금이제일밥분시긔이고 선동자가 누구인지모르니 엇지합니까 권리대표팔명에게도 다음긔회에는 곽사용하랴고합니다」운운

水原와서活動 全北警察部員 學生一名護送

【水原】 전북경찰부고등형사대원은 수일전부터 수원에와서 활동을 하고잇든중 지난이십삼일에는 모처문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으로 수원군산루리(水原山樓里)에사는 권대균(全大均)을 수원의두에서 검거하여 전북경찰부로 압송하여 갓다는데 사건의 내용은비밀에 부침으로 아직알길이업다한다

六歲小兒二名이 沐浴中一時溺死 翰林港에서생긴慘事

【濟州】 지난륙월이십칠일오후삼시경에 제주도구우면 한림항내(濟州島舊右面翰林港內)에서는 어린소년들이 해수욕을하다가 오연히유아시체(幼兒屍體)두개가 떠올으매 이를발견하야 부근사람들이 의응원을 어더가지고 겨우수조를해서 즉시응급수당을 해보앗스나 시간이이미느저서 의사되저가발서 한시간이상을 경과햇스므로 소생식힐길이 업섯다는데 그의사한어린아이들은 동한림리(翰林里)고윤수(高允洙)의 이남 고두선(高斗善)륙세이며 또하나는동리 고제수(高濟洙)의 손자(孫子)고재원(高在元)륙세이라는데 모다어린아이로서 바다로해수욕을 갓다가 그와가티 익사되엿다고한다

羅津都市計劃

【羅津】 태한에운애가리바라든 시가지 계획령은 그간발표를 보게되여 라진읍민 주민은대활기를가지고 잇는이때 그시행의 도도한 흥원함에따라 방금라진읍에서는 그시가지 계획에잇서서만전을긔코저 도계계(都計係)를두 설하고 그주임으로 등정차랑길(藤井次郎吉)씨를초빙하여 방금동씨의 그실현에 매진하고 잇다한다

蓄音器의今昔

蓄音器祭에臨하야

Z. Y. X

朝鮮에서도 七月一日을期하야 各蓄音器會社朝鮮支店과販賣商들이 盛大히 蓄音器祭를 지내는모양인데 人類文化의이巨大한 貢獻이 우리에게까지 밋처 科學의驚異를깨닷게함에 잇서서이機會에讀者諸賢과함께 蓄音器의發明由來와 그日常生活에잇서서 업지못할娛樂의大衆的인 이蓄音器의그發展經路를 簡略하나마 探究할必要를늣긴다

蓄音器(Phonograph)는 레코―드에 錄音된것을 再生發音식히는機械裝置이니 一八七七年 七月 그라함·벨이 特許의發條(스프링)의 吹(唸)音을 蓄錄으로送信하고 翌年三月十日에 人間의 音聲이 바눌(針)으로 傳해젓다 토―마스·알바·에듸손은 여긔에 힌트를어더가지고 音을 記錄해서는 發音식히라고생각하엿다 이보다압서서 一八五五年에 佛蘭西의 레온·스콧트가 記音裝置를 發明하야 (Phonautograph)라고일홈을지엇스나 다만音波의高低强弱을오림에 갓첫다 一八七七年八月十一日에 에듸손은 最初의蓄音機設計書를 揭西始生의 機械工 쪼―지·크르세이에게 넘기여 試作식혓다 費用豫算이 十八弗이요、構造는 輻三吋의 眞鍮圓筒이 錫箔上에서 손을 돌림으로되는것인데 圓筒에는錫箔을 부치고 喇叭管의미테는 엷은振動膜을부치여 이것과垂直으로振動하도록 사파이야의針을 대고자서 尖端을錫箔面에 닷게한다 이래서喇叭管압에서 音을發한즉 振動膜과바늘과는 同一의振動을하고 前述의손으로돌려서 圓筒을 一定한速度로回轉滑動식히면 바늘은錫面에音의振動으로 相當한波狀의 溝線을따라서 이것을 蓄音하면 必要에應하야 再生이될수잇다 即 圓筒面上의溝線에 바눌을대여 圓筒을 前과同速度로 同方面에回轉滑動식히면 바눌은 溝線에沿하야 前과가티運動을되푸리하기때문에 發音膜도함께振動하야 音을發한다 이것이 誕生當初의 蓄音器엿다

一八八六年 삽터―펜터―、와·알렉산터―벨이 錫箔을 대인同筒을 蠟筒으로 改良하얏고 이에서 一八八七年에 獨逸의 에밀―·벨리너―가 蠟管代用의 圓形平板을案出하엿다 이사람은 하노―바의生으로 獨逸人인데 그뒤로 아메리카로 移住하엿다

에듸손式吹込은 圓筒의周圍에上下振動即 深淺의溝를 파는方法으로 벨리너―式吹込은 平平한둥근盤面에가는기파의左右振動의溝를파는方法이엿다。 그와함께喇叭口로부터 吹込한것으로 악코―스틱크라稱한다 이吹込方法은 一九二四年代까지使用하얏다 이蓄音器를나은 어머니는 에듸손의蓄音機(Phonograph)도한 發育한어머니 벨리너―의命名은(Gramophone)이것은다―가티音을記錄

『文字들』意하는希臘語에서派生한綜合語이다 그런데中華民國에서는 留聲機器、戲機器、唱機、活便子、日本에서는 蓄音器、大臨蓄音機、音機等여러가지 일홈이 잇섯고 現在는 蓄音器라고 名稱이되여 이것이 우리입으로도 불러지게되엿다 一時 그나、『蓄』나가 問題되엿섯스나 東京大審院에上告까지하게되엿든것이다

레코―드 稱呼에關하여서는 英語로(se)와 (Plate)의 二種이잇는 前者는 로―만語系의나라에서 轉用되고 後者는 [illegible]語系의 나라들에서쓰다 佛蘭西의 (Disque) 伊太利의 (Disco) 西班牙의 (Disco, Plate) 獨逸의 (Platte) 和蘭의 (Plaat) (Plader)레코―드音盤을그대로 (Record)等 中國에서는 樂片、唱片、曲片、話片、音片、留聲機盤、唱盤、唱蝶等이

그런데벨리너―가改良案出한平圓盤 最初에는 試驗時란프르브럭油膜을 塗布한平板에波紋을 딴것으로 一八八七年 英國그라모폰會社가大量錄音을試하엿다 (계속)

레코―드音樂禮讚

H · C · I

罐氣吹込以後레코―드갑시싸지면서 그普及은 宏壯해젓다 따라서 레코―드를通하여우리가平素는到底히 들을수도업는 名曲大作을 쉽게들을수잇게된것은 크게반가운일이다 前日에는한盤에 五、六圓 七、八圓 乃至十數圓을 내이지안으면손에너흘수도업든 名手의名曲吹込을 至今엔 二、三圓이나三四圓으로 當場에살수잇게된것도생각하면 今昔의感이잇다

◇

그러고 演出者와演出機關이 적은우리朝鮮에서의西洋音樂의 普及 이 또한이레코―드의普及에依存되는바 큼은터람것업다 京城가튼곳이라면 그레도낫다 春秋로外國의名樂家도 이따금차저주어 好樂家들은 이 그리 십입지안는만큼 名演奏를 들을수도 잇스나 한거름、地方으로 내려가면그나마 이따의演奏家들의 것조차 接할수업는것은 다시업는不幸이라할것이다 그런데 레코―드의實演과는달으다하나 그래도、레코―드의普及으로、조혼音樂을들을수잇는것은單純히好樂家의 便利의程度以上으로、그 조혼音樂의조혼發展을 爲하야 큰도움이되는것을 疎忽히할수업다、一般音樂理解의水準을놉히하는큰힘이된다

◇

그러나 近來에와서反面에는 레코―드音樂이極히 低級으로 흘러가고잇는 크다란逆流를看過할수업다、本來레코―드會社가크게는 國際的大商業資本家의손으로되엿것임으로 利益을爲하여서는 法이許하는 限度內에서 어떤種類의音樂이던어떤種類의雜談이던 그製作에주저치 안음으로浮薄하여가는 이世波를타고 그리賛成할수업는 卑俗한音樂을 大量으로生産하야 무서운宣傳力으로販賣하고잇슴은 會社本來의存立上不得已한일이라할것이나 그러나贊成할수는업다 이亦 오늘의 社會 에잇서서는 할수업는일이라、레코―드會社만을非難할수도업다、그만큼 그런種類의 레코―드를 需要하고잇는俗衆이 잇스니까、

◇

그런데問題는 一般의藝術에잇다、大槪音樂藝術이란것은、어느藝術에서도 볼수잇는것과가티 生命이잇는것이어야한다、말하자면 어떤레코―드를 揮할때에 그當場에서는 듯기조와도、몃번만 듯고나면맛을일흔것이엇다 卽、한번어느짧은期間에 流行되고는 그後자최를 차출수업는것等은 生命잇는藝術이라고 할수업는것이다、그대신歷史에 남는樂器의것은初步者가 當場듯어가는그맛에 惑할 만큼 맛보지는못한다해도、두고두고듯을때에 김고덤븐맛을 늣기게되는것은生命잇는 藝術이기때문이다、오직生命잇는 音樂藝術만이우리의生活感情을 純化식힐수잇는것이오 따라서 우리가擇하여만할 레코―드音樂도 이에限할것이다 (完)

紀念大賣出

西鮮唯一의樂器店은

콜럼비아專門店

平壤府南門通二丁目

常信樂器店

電話一七三二番

信用本位의常信樂器店

紀念大賣出

京城本町二丁目

標準時計 Ⓜ 村木時計店

電話本局 四七七二 四三七七一

弊店은全店員七十名이 全力으로써奮鬪하고잇슴니다

コロムビア蓄音機 レコード 專賣店

紀念大賣出

悔心曲

全三枚 金三圓

朝鮮佛敎史에나타난 偉大한 音樂藝術을 찻는이누가 이 神秘靜妙한 悔心曲에 「여스다시」를 늣기시지안는이잇스랴。朝鮮의情緖에서 흘러나오는 佛心의神樂을 들으시라!

權明學師吹込

七月新譜를 豐富히具備하여오니 試聽하심을伏望합니다

和信 樂器部(東舘三層)

紀念大賣出

『레코―드』말슴에요? 어서오십쇼!!

『빅타―』잇슴니다 『오―케』도잇지요

『콜럼비아』뿐이겟슴니까 『태평』도잇슴니다

『포리돌』『시에론』? 드리지요 드리지요

또 각종악기도 잇슴니다

京城鍾路二丁目(靑年會館下層) 京城樂器商會

電話光化門一九七七番 振替京城八九二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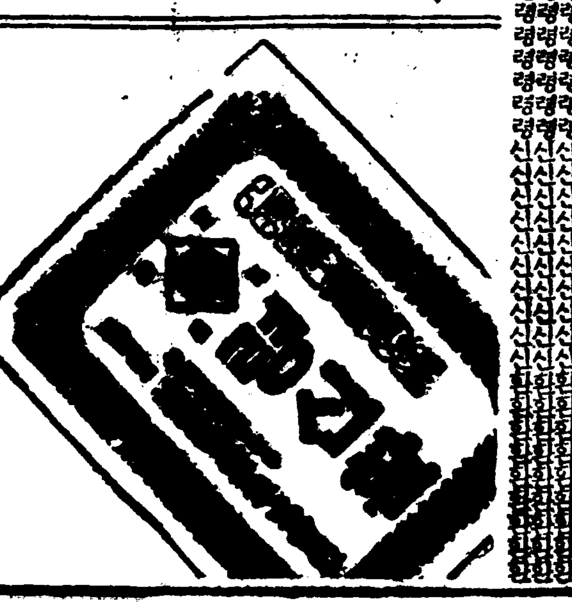
祝蓄音器祭

朝鮮賣藥

效力第一

夏節의 腹痛과泄瀉에 健胃消化劑로 家庭에常備하라

한신령



本舖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朝鮮賣藥株式會社

電話本局六四·二三八四番 振替京城二八四〇番

十錢·二十錢·五十錢·壹圓·貳圓五拾錢

祝 七月一日 蓄音器祭

世界的
最高權威
콜럼비아
蓄音器
레코ー드

Columbia

REGAL

大衆盤
리ー갈레코ー드
蓄音器祭를紀念으로
七月五日大發賣!

編曲者
全基玹 金駿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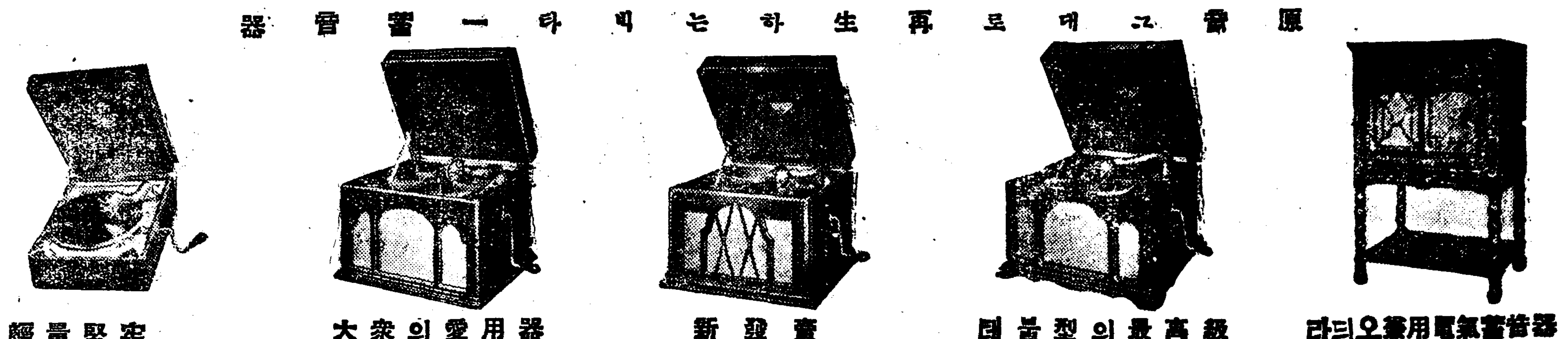
第一回九十種

밤〻곡〻마다
아름답은 노래소래
갑싸고
리ー갈레코ー드
사진과가치 예술가
―총동원―
리ー갈레코ー드 만세!

祝蓄音器祭 (七月一日)

祝蓄音器祭 ※ 빅타ー一週間 自七月一日至七日

原音그대로再生하는빅타ー蓄音器



現代科學의結晶 四十年研鑽의成果

라듸오兼用電氣蓄音器 JRE-31 金三百七拾五圓

테블型의最高級 JI-91 金百貳拾圓

新發賣 JI-71 金六拾五圓

大衆의愛用器 JI-50 金四拾五圓

輕量堅牢 J2-5 金五拾圓

好評流行歌레코ー드

A 山으로바다로 崔南鏞 / B 꿋각씨서름 李愛利秀

님마지배 / 님오실거리 孫錦紅

사랑에우름 / 서른신세 崔南鏞 姜石燕

실버들 / 내버려두서요 崔南鏞

A 눈물의칵텔 姜石燕 / B 밋처라봄바람 崔南鏞

야속한꿈길 / 봄거리 李銀波

니즈시엿나 孫錦紅 / 비나리는밤 李銀波

빅타ー레코ー드

시에론레코ー드

萬人待望의

春香傳全集 出來！ 一枚壹圓

第一編 南原의春色

第二編 廣寒樓의佳緣

第三編 鴛鴦枕에사랑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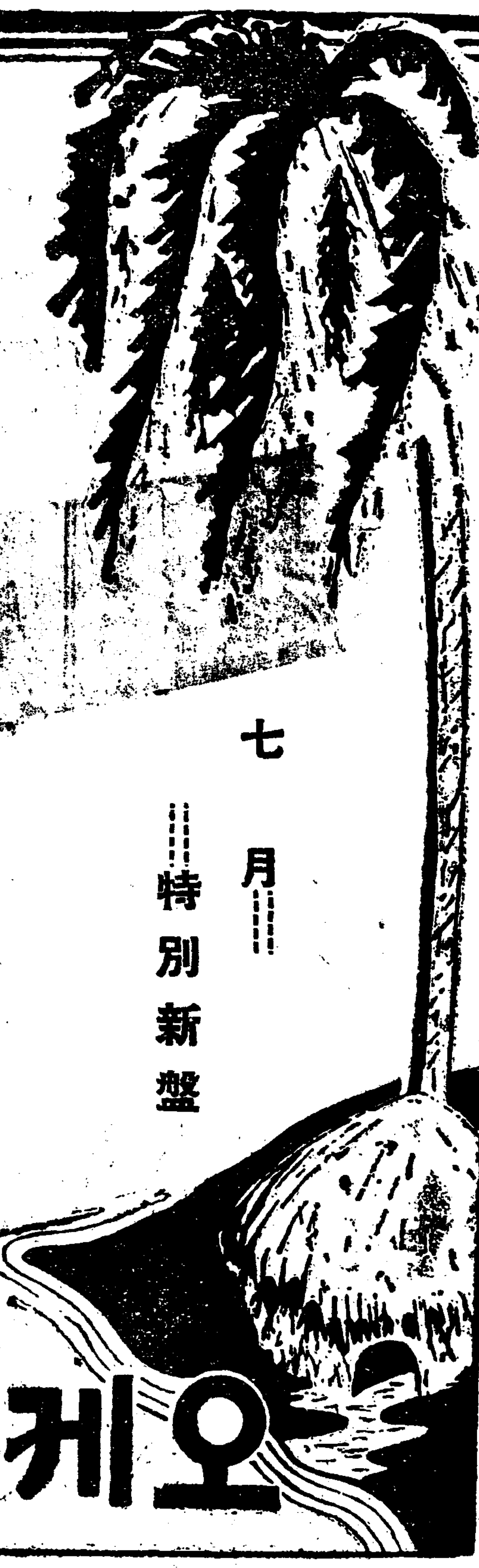
唱 金正文 申錦紅

演 沈影 南宮仙

全集二十枚

全集사시는분에게記念케ー스進呈

오케ー레코ー드



七月特別新盤

1688 聖歌 하날가는밝은길 / 거룩한城 獨唱 李宥善 伴奏 J 링케

1684 流行歌 靑春有情 合唱 高福壽 李蘭影 / 바다의行進曲 江南香

六月廿五日發賣

태평레코ー드

無敵！太平盤의優越

1934年度結論的人氣盤百出

動員！

悲劇 女給 全擬門

流行歌 아!靑春 / 흘으는계집 吉貴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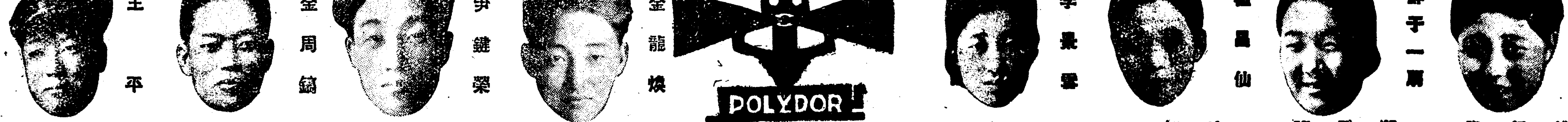
新民謠流行歌 달아래피는處女 / 不夜街 吉貴松

名作 悔心曲(三枚) 權明學

俗謠 新군밤打鈴 / 新양산도 金玉葉

기린레코ー드

포리도ー루레코ー드 POLYDOR



新民謠 朝鮮打鈴

流行歌 王壽福: 孤島의情恨 / 人生의봄 / 青春을차저 / 눈물의달

新民謠 鮮于一扇: 꿋을잡고 (一九一三七) / 영감타령 / 숨사이물방아

流行歌 崔昌仙: 못오시나요 (一九一三七) / 괴로운술잔 (七月二十日發賣)

流行歌 李景雪: 世紀末의노래 (一九〇二四) / 京城은조흔곳 / 劇을고웃는人生 李景雪 王平 (一九一四〇)

『蓄音器祭』를마지하옵에 먼저 여러분의 만흔신厚誼와聲援을感謝하오며이어서 저의 自身의 研究와 努力을倍加하야…여러분의 企待하심에서萬一이라도『갑흠』이잇게하려하오니 變함업스신 愛顧를길히 베풀어주시기를절히바랍니다…

流行歌 金龍煥: 朝鮮日報一等當選 豆滿江뱃沙工 金龍煥 / 목매여웁니다 / 沙工의설음

流行歌 尹鍵榮: 그리운그녯날 尹鍵榮 / 봄노래 / 그대여울지말어라

新俗謠 金周鎬: 발님여금 金周鎬 (一九一三八) / 遠浦歸帆

스켓취 王平: 青春日記 李景雪 申銀鳳 / A 山遊篇 王平 B 感激篇 沈影 (一九一四五) / 劇 港口의一夜 王平 全玉 (一九〇六二)

朝鮮教育會撰定 新民謠 개나리打鈴

코롬비아蓄音器

NO203號型 35.00

夏！山으로바다로

山口樂器店 京城本町 電話本局二三五五番

빅토로라蓄音器 J2—5型 50.00

琴喜樂器店

諸般樂器蓄音機・레코ー드・樂器附屬品等

本店에는 試聽室이잇서 어느분이나 레코ー드를 試聽하실수잇스며 地方注文도 아모리 먼곳이라도 親切叮嚀히 取扱하옵고 管絃樂器와 附屬品은 本店의特色中에그하나입니다

피아노及오르간 調律部를新設햇슴니다

京城鍾路二丁目七八 電光一六三 振替一四三〇九

빅타ー、콜럼비아、포리돌、오케ー、시에론、太平、諸會社의特約店

紀念大發賣

各會社特約店

アサヒ樂器店

京城府本町一丁目二二

電本三・六五九番 振京四・七六一番

口中殺菌劑

입으로드는病을막고
精神을爽快히하는

衛生口錠 カオール

가오루

本劑는健康者가
病菌侵入을안밧도록、飮食後에、外出할時、
사람混雜한時等에二三粒을口中에
含하면、暑氣를消하는懷中良藥임니다

只今
男女解剖圖 十色刷 옵셋트
カオール五錢包（四十五粒入）와
無代進呈은
夏期衛生保健上、意義잇는計畫으로서
果然大好評을博하고잇습니다!!

希望하는분은即時右포스타가걸여잇는近處藥店에가세서바드십시요

カオール의配劑와其効用

製劑顧問 ドクトル 松尾 道

一、口中殺菌劑를配合함
따라서空氣또는飮食物과함게口腔으로侵入되는諸種의病原菌을口中에서殺菌하는故로여러가지傳染病을豫防함

二、健胃整腸劑를配合함
따라서胃를健全케하고、또그의消化力을亢進하며食慾을增進케하고瀉泄、腸가다루等에整腸劑는殺菌劑와서로協力하야이것을治療함

三、興奮劑及强壯劑를配合함
따라서心身이疲勞沈衰한時에는各機能을興奮케하고氣力을旺盛히하며、健胃劑와相俟하야內臟의强壯을計함

四、淸凉劑及美香劑를配合함
따라서그의特有한芳香으로口中의惡臭、惡氣를除하며、祛痰劑는咽喉의乾燥를부드럽게、高聲을美化하야精神을爽快히함

◎그러므로諸位의保健을爲하사

◇惡疫流行할時 ◇飮食한後
◇他人과接할時 ◇汽車電車에탈때
◇執務工夫할時 ◇遠足運動할때
◇口中냄새날時 ◇酒煙을하실때
◇禁煙할야는時 ◇音聲使用할때
◇氣分不好할時 ◇疲勞한때

カオール二三粒을口中에너시요、本劑를입에너면、마스크、양치질할必要도업는同時에心身을爽快히、胃腸을健全히하는効가잇음

◎本日브터곳カオール를常用하시기를勸합니다

定價와容量

袋入	(十錢)	百粒
同	(二十錢)	二百五十粒
ポケット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丁字形容器付	(三十錢)	三百粒
御勾玉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鞄形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德用瓶入	(五十錢)	八百粒
同	(一圓)	二千二百粒
光輝金石美術容器付	(五十錢)	五百粒

本舖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株式會社 安藤井筒堂 藥品部

"잘낫차는아이가 낫코보니눈먼겨"

洛東江岸麥作被害補償問題와 道當局의誠意잇는聲明

【釜山】 루보=락동강하류지역 맥작피해보상에대하야 피해관계각면동리 경작지 실지조사와 매단수확 사정의 개수정리는 끗치보한바와가리 이십칠일에 맛처엇슴으로 경남도에서는 이것을 총독부당국에 제출하야 최후의결정을바다 당안이 나리는대로 금명간에 보상지출을 실시하기로되여잇다는데 보상액과 일단보 수확사정은 귀보한바와 가트리라고 추측되나 확실한수량은 총독부의 결정을바든후 정식발표하리라고한다

보상조서를 총독부 당국에서 결정하야 정식발표를 하기전에 경남도 당국에서 피해보상문제에관하야 성명한바가 잇섯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지난 오월팔일부터 구일에궁하야나린 비로인한 락동강하천개수공사지대를 중심으로 김해군하(金海郡下)가락, 대저, 명지, 장유, 주촌, 하동, 김해읍등의 맥작에 만흔 손해를 보게하야 관계리재민의 궁경은 동정한다

이공상을 상세하게 실지조사하야 총독부당국에 진정한바잇서서 피해구역과 피해금액을 사정하야 벼금총독부에 발송하고 예산의 배부를밧는대로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출할작정이다

락동강 일치의공사중 보류로부터 역류(逆流)하는물이 모여 잇서서 이를급히 업시하라면 하부의체절개소(締切個所)수문의일부를 곤어바렷드면 최소한도의 맥작피해만보고 마럿슬것을 이럿케한다면 한편으로 배수(排水)의지장을바다 염해(鹽害)가모자러에 주는영향이 더클것을 별려하엿든것이 파마중 호우로말미아마 의외로 맥작피해를보게되엿다 그러나 동래군하(東萊郡下)의사하면과 귀포방면의 맥작에관하여는 자연 홍수에인한것임으로 보상의 책임이업다 할지라도 리재민의곤난은 김해군하의 피재민과 다름업슴을 동정하고 별도(別途) 도비(道費)로써 구제하기로하야 김해군하의 보상금과가티 실시하기로하엿다 금회의보상문제도 락동강일부개수공사중 욱수한원인에 기하엿슴으로 특별처치를 하게된것임으로 보상금에대하야 예괴이라하야 당당을지라도 당국자의성의를 알어주기를바란다.

대게 피해면적은 이천정보 일단보 수확은 평균 일석가량으로 보상총액은 십만원가량이라하며 보상을 바들 피해농민수는 약오천오백명의 다수에 달하엿다한다

자연홍수로인하야 김해군하와 맥작피해와 동시에 피해를본 동래군하와 김해군 일부의보상을 경남도비로 지출할 금액은 다음과갓다한다

東萊郡下 四、二四九圓九八
金海郡下 一、九八三圓二四
計 六、二三三圓二二

梨泰院朝陽學院 校舍新築期成 學父兄會에서決議

【京城】 시외리태원(梨泰院)에잇는 조양학원(朝陽學院)은 그교실이 협착한관계상 아동교육보급상 막대한불편을 늣겨오든바 지난이십구일 오후팔시에 학부형회를 개최하고 원사신축금칠천원에대하야 위선 동정금을모집하기로하되 나머지 부족한것은 조선저축은행(朝鮮貯蓄銀行)으로부터 대부하야 다달이동비로써 그를제해가기로 결정한후 동정금모집하기에 대대적활동중이라한다

뻐쓰、탁시等 賃金低下運動 永登浦有志의蹶起活動

【永登浦】 영등포경성간뻐쓰、탁시등의 임금저하문제는 본년봄부터 지방유지간에 대두하야 경경고조되여 장차 사회문제화하려는경향이잇는데 저간영등포로락진 양지의공직자들은 재삼경전(京電)측에대하야 뻐쓰임금저하를 교섭하여왓스나 아직실현에 이르지못하야 지난이십팔일에다시 교섭위원인 수하(手賀)황목(荒木)산하(山下)김태집(金泰集)삼고(森高)목하(木下)고교(高橋)리학수(李鶴秀)동제씨가 경전무자전무(武者專務)견목상무(見目常務)소송전차과장(小松電車課長)등을회견하고 약한시간동안 열변을토하야 하고약한시간동안열변을토하야 에서는 경인(京仁)뻐스를 인수한후 상당히거액의 설비비를 드린것을 구실로 의연히 완강하게 내대임으로 경극결과를 보지못하고 다시후일에 교섭키를약속한후 도라오는도중에 도경찰부장을방문하고 경영간(京永間)탁시금저하에 대한 진정을한바 적당한 시긔를보아 실현되도록 고려한다는 권답이 잇섯슴으로 일동은 만족히도라왓다는데 교섭위원중 모씨는 분개한낫츠로 다음과가티말한다

아시는바와가티 경전뻐스임금저하문제는 지방 발전상등한히 볼수업는 중대문제입니다 현재 경성중로오정목에서 돈암리간의 뻐스운전 실례를 본다드라도 거리가 먼것과 도로가험악한 것과 승객이 근소한것등으로 보아서 경성영등포간은 당연히 이구제로 하지안으면 안될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설비비가 만히든것을 구실로 하지만 은 아무리선의로 해석하여도 것영업자들의 다과를론하는 것은 당한리유라고 볼수업습니다 그리고 탁시임금도 현재 경성영등포간 편도에 이원팔다 그리고탁시임금도 실현이란것은 너무나 용한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경찰부장도 잘량해하야 고려한다는 명답이잇섯는데 엇잿든 지방발전상 긴급한중요문제임으로 긔어코 실현되도록 진력하려고합니다 운운

心香書伯展覽會

【全州】 심향화백(心香畵伯) 박승무(朴勝武)씨는 저간 전주에서 개인전람회를 개최하랴고 준비중이든바 그간 륙십여점의 작품이 정돈되엿슴으로 오는칠일에 시내공회당에서 전람회를 개최한다는데 견본산수화(絹本山水畵)한폭에 십원식이라하며 당일 여흥으로 추첨에의하야 좌괴와가튼 상품을 증정하리라는데 벌서부터 전람회개최를 압혜두고 예약신입자가 상당히만타고한다

一等 一人 南固山寫生 一幅
二等 二人 山水 一幅式
三等 三人 器皿折紙 一幅式

西湖普校學藝會

【興南】 서호공립보통학교에서는 년중행사인 학예회(學藝會)를 지난이십구일 동교강당에서 거행하엿는데 관민학부형으로 모여든 관중이 무려천여명에 달하야 성황을이루고 무사이산하엿다고한다

女高普寄宿舍에 短刀든怪漢侵入 一時大騷動을이루켜

【全州】 지난이십팔일 오전세시경에 전주시내 녀자고등보통학교긔숙사 제이호실에 어떠한괴한이 칩입하야 곤히잠드러잇든 녀학생모를 깨워 이르킨후 가젓든단도로 위협하는것을 권긔학생모가 악을쓰며 고함을치는바람에 린접한녀학생들이 깨여 금거히드러가자 권긔괴한은 그대로 도망하야 자취를감초엇다한다 이급보를접한 전주경찰서에서는 팔방으로 범인수사에 노력중이라고한다

入浴少女溺死

【大同】 대동군림원면 남사리 리병모(大同郡林原面南四里李炳模)의장녀 리화실(李華實)(六)은 이십팔일오후한시반경에 고방산(高坊山)압대동강에서 목욕하다가 무참이익사하엿다한다

建築中普校倒壞 重傷者五六名 二十六日의비바람에

【惠山】 혜산진대안만주국장백현에잇는 조선인민회 경영인 보통학교사를 신시가에 건축중이든바 지난이십륙일 오후일곱시경에 큰비가나리는중에 잠바지자 때마츰바깟서 일하든농부 다섯사람이 그집안에서쉬다가 중상을당하야 혜산자혜의원에 입원하얏는데 생명이위독하다한다

協親會經營夜學에 補助申請이問題로 攻擊의矢가四面서비ㅅ발치듯 今後事態를重大視

【神戶】 신호우리협친회(神戶우리協親會)라면 누구나다아는 력사깁흔 단체이며 재신이만여동포를 위하야 즉접간접으로 만흔공헌이 잇섯슴은 속임업는 사실이다 과거팔년이란 긴동안에 천신만고로 백절불굴의 용긔를 가지고 건동처정신그대로 내외동포의공명과 성원을바다오던 그단체는 작년칠월부터 우리무산아동을 위하야 비록야학이나마 설치하고 이래경영난으로 만흔고초를 밧는동시에 각방면의 성원과지지를 바다근근이 유지하는바 배움에굼주린아동은 실로놀낼만치 일백오십명이나되여 성적이 우량함을 일반이 칭송하던바 근일에이르러 권긔 협친회를 개인으로나 단체적으로 공격이괴자와다는데 이제 그원인을 조사한바에 의하면 협친회일부 간부며사람이 동야학을경영난이란구실로 신호시당국에 보조를청하엿던바 의외에도 신호신문에 대서특자로 재미롭지못한 긔사가 씨여잇는것을 일반이 알게되자 그와가튼비판이 고조에달한것이라한다

協親夜學은 結局解散難免? 協親會側關係斷絕聲明

협친회경영인 야학에대하야 신호신문의 긔사가한번 세상에전파되자 일반의비난이 놉다하야 별항과 갓거니와 동협친회로서는 지난이십삼일밤칠시에 긴급확대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신호신문사는 협친회전체적으로감동한 긔사가아니고 일부분자의 망동에지내지안는만큼 일반사회에 성명서를 발표하는동시에 야학과의관계를 일체끈키로 결속하고 아래와가튼 토의사항이잇섯다고한다

◇討議事項
一、神戶新聞記事檢討
一、本會와夜學間關係
一、本會重役의資格審査
(以下는省略)

端午노리經過 脚戲及鞦韆

【長淵】 장연시민회주최와 본사장연지국후원의 제칠회 장연시민대운동회는 예정과 가티 지난십오일 오전십시부터 망양운동장(望洋運動場)에서 개최하고 삼십여종목의 경기를 수만관중의 열광과 환호리에서 쟁패전을 연출하엿는데 운동장내는 물론각지에서 몰려온 선수와응원대로는 문자그대로 인파만경을 일우엇스며 동대회는 삼칠일오후칠시에 회괴에한중에서 닷처엿는바 입상자는 아래와갓다고한다

一、關東蹴球大會 [illegible]優勝 一、마라손 一等[illegible](揚口) 二等[illegible](元山) 三等[illegible] 命(昇箭) 一、鞦韆 一等嚴立粉 二等尹玉秋 三等黃音天 ◇少女部 一等[illegible]錦子 二等丁順德 一、自轉車一流 一等金東守(高城) 二等朴淳敎(橫城) 三等金萬泰(長箭) 二流一等金福仁(橫城) 二等李谷壽(長箭) 三等金鐵亨(長箭) 一、씨름一等盧仁新(長箭) 二等張承達(井驗) 三等

【星州】 본보성주지국주최와 청년유지일동의 후원으로 개최되던 단오 남녀추천 대회는 예정과가티 단오날 록음이 욱어진 서문외유림에서 개최하바 참가경기자 이백이십사명중 녀자가 구십팔명이엿스며 관중이 이천여명의 대성황리에 맛치엿는데 입상자씨명은 다음과갓다

◇男子部 一等朴貫篇 二等李玄伯 三等崔龍岩 四等辛鳳洙 五等郭貫果
◇女子部 一等김옥련 二等리초월 三等박금조 四等소윤봉 五等리재영

【瓮津】 옹진시민 주최와 중앙、조선양신문지국후원하에 옹진각희、추천、대회는 십륙일오전십시부터 개회하엿는데 당일의수상자는 다음과갓다

◇男子部 一等趙國濟 二等邊應根 三等金澤善
◇女子部 一等金知順

【新溪】 신계군읍내 시민일동의주최와 조선일보 지국후원하의 씨름과 추천대회는 음오월오、륙량일간 개최하야 대성황을일운바 당일입상자는 다음과갓다

◇脚戲部 一等玄元圭 二等崔鳳安 三等金蓮祖 四等孫澤洙
◇鞦韆部 一等李敬淑 二等康永姬 三等申姓女 四等李寶培 五等李素恩
◇마라손(一萬米) 一等文達俊 二等李春植 三等韓泰亨 四等金將軍

【德川】 례년과가티 덕천체육회주최와 본보덕천지국후원으로 덕천각희대회는 음오륙양일 무사히 지냇는데 일등상은 본군일하면에 잇는 리승수(李承洙)군이 수상한바 당일 서선소년군 삼십이호대의 민활한 활동을보고 당석에서 금일봉을 수상자로부터 소년군에 긔증하엿다한다

【新市】 신시시민주최와 본보신시지국 후원하에 개최되엿든 각희급추천대회는 예정과가티 십륙、칠、팔삼일간 당지백사장에서 개최하엿는데 수상자(受賞者)는 다음과갓다

◇脚戲 一等李昌珍(鐘城) 二等趙富鉉(宣川) 三等李基弘(宣川) 四等李酉德(新市)
◇鞦韆 一等許實伯 二等崔仁寬 氏婦人朴氏 三等裵仁花

【石岩】 단양가절을 긔하야 당지소방조주최와 본보 판매소후원으로 개최된 각희와추천대회는 대성황리에 종막을고하얏는데 수상자는 다음과갓다고한다

◇脚戲部=一等 李山壽 二等李龍漢 三等李賢三 四等李鶴九 五等李養來
◇鞦韆部= 一等金承吉 二等金確實 三等朴鳳閑 四等張仁愛

【博川】 박천체육회 박천각희회 주최와 조선、동아、매일 삼지국후원아래에 박천면사무소운동장에서 지난 음오월오일 오전십시부터 시민대운동회의 서막이열리여 대성황리에 동오후칠시반까지에 마처고 익일부터 사일간우장소에서 각희대회를 개최한바 각지에서역사가 구름가치 모여들어 연일대성황을 일우엇스며 수상자와상품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等金福淳 二等金鶴擧 三等邊炳河 四等方鳳讓

【鐘城】 년중행사의 하나로는 해마다 거행되는 귀성각희대회는 청년회주최와 본보지국후원으로 금번도 예년과가티 음오월오일부터 칠일간 거행되엿는바 각지에서 용장들이 마히 모여들어 자못큰성황을 일우고 원만폐회하엿는바 금번에도 경찰군의 렴사등이 우승하엿스며 중에도 박선실(朴善實)씨는 고래로 희생시대부터 역장이엿스며 금번에도 백운동에서 익동상 남시에서 역동상 귀성읍에서 이동상을 획득한 압호로 만은귀대를 보이는 귀성의역장이라하며 당일우승자는 아래와갓다한다。

一等 金在實 二等 朴善欽
三等 康仲明 四等 金護宗
五等 梁元淳

【大連】 본보대련지국 주최의 녀자추천대회는 재주 동포유지의후원으로 예정과가티 음오월오일에 대성황중 무사히마치엿다는데 입상능급 부상외에 칠동까지잇섯고 일등상에는 조선인운권수측에서 조직한 조운회(朝運會)에서 긔부한 고급금지환을 수여하엿다는데 입상자씨명은 다음과갓다고한다

一等―김재선 二等―김경신
三等―김보복 四等―오복환
五等―리일복 六等―오인봉
七等―김귀선

【奉天】 봉천조선청년회 주최와 만몽、동아、조선 삼신문지국후원으로 단오가절을 리용하야 시민대운동회급 각희대회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연긔하야 지난이십삼일과 이십팔일 양일간 국제대운동장에서 저대히개최하고 회장 리성환(李成煥)씨의 개회사로 제일일은 각희대회、제이일은 륙상경기대회로써 개막되여 봉천초유의 대성황리에 폐막되엿는데 양일간 성적은 아래와갓다

◇脚戲大會 一等金永八 二等崔奭奎 三等金昌樹
◇陸上競技大會
▲一萬米 一着金國鳳 二着崔仁洙 三着金貞祉
▲八百米 一着[illegible]
▲商店對抗八百米리레 優勝 金城商店

驪州法院支廳 復活運動再燃 廳舍費寄附募集着手

【驪州】 재작년이월에 민형사사무취급정지(民刑事事務取扱停止)를당한 려주지청의 부활운동은 작년오월에도 권군을동한 일반유지들이 회합하야 부활긔성회를 조직하고 활동을개시하엿다함은 그때에도 루차보도한바어니와 결국청사 건축비 모집의난문제로인하야 일시 정지상태에잇서서 지우금 일대현안으로되여오든바 지난륙월 이십일에 일반유지들은 다시회합하야 람만토의한후 본도의원(本道議員 田殷昊)씨와 송석주(宋錫疇)장도붕백(長島朋白)원본재장(垣本才藏)사씨가 진정위원이되야 지방복심법원과 도청법무국등 관계당국을 밀일히순방하고 여러가지의조건들을 어든정한바 대체에잇서서 호의를어덧스며 따라서 청사건축비 일만오천원을한도로 긔부모집에 착수하엿다는바 대체로 호성적을보인다하며 청사건축지의 확장준비는 긔의완성되엿슴으로 긔부모집만이 끗나는날에는 무난히실현되리라한다

電車衝突事件 運轉手送局

【平壤】 지난달 십구일밤 평양부내 칠성문외(七星門外)에서 부영전차가 충돌하야 (金正男)(二五) 차장 정석주(鄭錫柱)(三○)외 양명은 이십구일 아츰 업무과실상해죄로 대동서에서 평양지방법원검사국에 넘기어 압송치석검사의담당으로 취조가 시작되엿다한다

朴洗夷實宣敎 廿五週年紀念

【全州】 전주남화산정(華山町)에사는 서양부인 박세이(朴洗夷)양의 도선선교(渡鮮宣敎)이십오주년긔념식은 지난이십칠일 오후일곱시에 시내남문밧 례배당안에서 거행되엿다한다

양은 지금으로부터 이십륙년전 전주에와서 당지긔전녀학교(紀全女學校) 교감의직에 잇스면서 십오륙년간 한갈가티 조선의딸들을 가르처왓섯다 그후

中年女子自殺 獨子死亡悲觀

【金堤】 지난 이십칠일 오전 삼시경에 전주군상례면 상리래

洪原赤勞系 元子龍外六名 興南署에서釋放

【洪原】 루보=작년삼월이후로 제삼대로(第三次) 사건이 발각되여 그관계자로 함남홍원서에 검거되여 일년상개월동안이나 엄중한 취조를바더오다가 지난오월 구일에사건의 동일을

十八年守節寡婦 強姦當코飮毒自殺 五男妹의男女를두고

【金泉】 이십륙세에 남편을여의고 인청상과수로서 십팔년 이라는 기나긴 세월을절여가튼 간장을 녹여가며 절개를 생명으로여기고 강보에싸인 오남매의 어린자식에게 유일의락을붓치고 넉넉지못한 살림에 천신만고를겪어 오든동년피수가 유촌되는 일가에게 강간을당하고 분함을참지못하야 가해자의집에가서 독약을먹고죽은 사실이잇다

경북김천군남면부상동(慶北金泉郡南面扶桑洞) 김석의(金錫義)(六○)의모김석진(金錫振)은 지금부터 십팔년전 스물세때에 그의남편이죽고 이래로 자괴입신을 희생하야 백방으로 고롭겨거나가며 백절불굴의 굿세인심지를품고 살어오든바 지난음력사월상순에 맛집 이웃집에 결혼식이잇서서 약간술을마시고 과히잠든틈을타서 미리부터항상 인면수심을품고 긔회를엿보고잇든 유촌벌되는 자가 밤열두시경이되여 담을넘어 혼자자는침방에 돌입하야 불의의행동을감행하다가 잠이깨여 반항함으로 그대로도망하여 버리엿다는바 권긔과수는 분함을참지못하야 될방으로 가해자의 행방을 수색하엿스나 찾지못하고 드듸여 죽음으로써 모든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자녀들에게와 이웃사람에게 비창하게 후사를부탁하고 지난음력사월이십일 가해자인 김봉동의집에가서 다량의독약을먹고 신음하다가 동일오후 다섯시경에 사십사세를 일긔로 원한만흔 이세상을떠나고말엇다한다

십칠일 오전부터 평양부내 남산현교회당(南山峴敎會堂)에서 전조선대회(全朝鮮大會)를개최하

監理會女宣敎會 全朝鮮大會盛況 二百餘名이一堂에모혀

【平壤】 조선감리회녀선교회(朝鮮監理會女宣敎會)에서는 이십이교 고인도(印度)만주(滿洲)에 선교사파견하는일과 조선내부의 선교사업에대한 여러가지 중요사항을토의한후 이십구일 오후에 성황리에서 폐회햇는데 전국각지에서 온정한 각교회의 대표는 이백여인에 달햇섯다한다

◇寶貫同大會員 一同記念撮影

七千餘圓工費의 大成學友會館 二十一日로落成

【平壤】 대성학우회(大成學友會)에서는 지난사월중순에 평양부내 순영리(巡營里)번에 연평 사십평의 건와이층의 회관을 거축중이든바 지난 이십일일에 준공되엿다 이회에서는 회관신축준공을 계긔로 주동교육긔관설치(中等敎育機關設置)와 회보 발행(會報發行)을계획한다하며 이십삼일하오일시부터는 신축회관에서 제십오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긔계회안의 진행을결의하는 일방회관 신축비일부부족과 사업비별출동으로 인하여 다음과가티 천여원의의연을하고 오후륙시경에 폐회햇다

△義捐者芳名
△百圓式 趙東鎬 尹祖行 一 李昌濟 金秉稅 金定鎬
△五十圓式 金文鎭 李秉均 金謙鑛
△三十圓式 林承玉 朴寅煥 鎭完
△二十圓式 崔僖泰 崔允鎬 李炳浩 金性業
△十圓式 吳德恒 楊濟七 金明墳
△五圓 洪箕疇 金善柱

千三百年前古蹟 眞興王巡狩碑 古蹟物로認可願

【咸興】 함주군하기천면 진흥리이구원마동(咸州郡下岐川面眞興里二區元麻洞)에잇는 조선최고고적이라할만한 신라진흥왕 순수비(眞興王巡狩碑)는 내외일부가 파손되여 파편을구하지못하여오든바 소화륙년 오월에 발견되여 이를 마추어보니 적확히 일치함으로 이번 함남도학무과에서 고적으로 지정신청하려하는바 이제그 연혁을 간단히 소개하면 지금으로부터 일천이백칠십칠년전 신라진흥왕이 북순하다가 긔념으로 황초령(黃草嶺)정상에 수립하엿든바 리조철종삼십년에 당시함경도관찰사 윤정현(尹定鉉)씨가 진흥리중흥진으로 옴겨 노앗는데 다시명치삼십일년 함주군수이던 김택수(金澤洙)씨가 현재장소에옴겨 노흔것이라하며 그유서깁흔비를 긔념하여 영원히 보존키위하여 주민들은 창덕재(彰德齋)라는계를 창립하엿다고한다

落雷에犧牲者

鐵山에서 一名即死 家屋도倒壞

【新義州】 지난이십칠일오후구시이십분경 철산군 운산면장평동(鐵山郡雲山面長平洞)일백구번지 김석호(金錫浩)의 집에는 락뢰(落雷)가되여 잠자고잇던 김석호는즉사하고 가옥일부도 문허젓다는데 지난오월이래로 철산일대에 락뢰되는 범서세번째나된다고한다

安城에서는 畜牛一頭卽斃

【竹山】 지난이십구일오전세시경에 죽산지방에는 소낙비가 퍼주하든중 안성군이죽면 장계리한건수(安城郡二竹面長溪里韓建洙)의집 오양간에 락뢰되여 죽우일두가 죽폐(卽斃)하얏는데 동민들은 전률(戰慄)하야 일대소동을이르켯다한다

移秧타가 農民一人卽死 淸州郡下의慘事

【淸州】 청주군남일면은행리(淸州郡南一面銀杏里)에거주하는 지철원(池喆遠)(四○)은 지난이십구일 오전열한시경에 이양하다가 락뢰에마저 무참히도즉사하엿다한다

馬山稅務署管內 密酒五十五件

【馬山】 마산세무서(馬山稅務署)에서는 세무독립이후로관내 밀주취체조사에 전력을다하야 창원군을 중심으로 함안방면을조사하결과 창원군내에 삼십구건 함안에륙건 합오십오건의 밀주자를 발견하고금후 대책에 강구중이라한다

大津築港運動 陳情委員派遣

【盈德】 경북영덕군 영해면 성내동(寧海面城內洞)영영도로(寧、英道路)급대진축항긔성회(大津築港期成會)에서는 이래 활동한결과 영해영양간(寧海英陽間)도로는 륙월중순경에 준공되엿고 다녀간숙제중에잇는 대진축항에 대하야 구체적으로 토의코저 지난이십륙일 하오삼시반에 동긔성회 림시사무소에서 회장정건(井田)씨의 사회로 역원회를 개최한바 영영도로개통식은 팔월중순경에 개최할것과 대진축항공사비에 대하여서 지원수민의 부담금 모집과 본도에 진정위원 정권(井田)권래호(權泰鎬) 용림평(戎林平)삼씨를 선정하야 월초에 파견키로 결의하엿는바 일반

針工으로모흔 피땀무든百圓金 崇德校建築費로提供 全州鄭貞愛女史壯擧

【全州】 전주읍청수정(淸水町)에사는 정정애녀사(鄭女史)는 과반본지에발표되엿섯든 시내무산아동교육긔관인숭덕학교(崇德學校)건축비가 약칠천원가량부족하다는 긔사를 바다보고 넉넉지못한 과부의 살님사리에 동녀사는 경성안국동(安國洞)에 본적을두고 열일곱살시에 출가를하얏다가 이십사세시에 남편을 사별한후이래혼자몸으로 바누질품파리를 하야 생활하여오든동 그동안 푼푼히모흔돈을 금번건긔와가튼 대금을희사하여 소위 권주 인사들의 일대귀감(龜鑑)이되엿다한다 동교사는 경성안국동(安 國洞)에 본적을두고 열일곱살시에 출가를하얏다가 이십사세시에 남편을 사별한후이래혼자몸으로 바누질품파리를 하야 생활하여오든동 그동안 푼푼히모흔 백원금을 희사하야 동교의 건축비의 보조를 주어 이번에 대서황의 역장이 되는 에서 이동상을 획득한 압호로 만은귀대를 보이는 귀성의역장이라하며 당일우승자는 아래와갓다한다。

林巨正傳 (498)

洪碧初 作
安碩柱 畫

결의 (三의十三)

관속들이 개 쏘대듯하는 읍내바다에서 일행이 오래지체하는것은 부질업기 짝업는일이라 외촌에 나가서 어물장사 행세하고 돌아다니며 일을 꾸미자고 의론들하고 읍에서 정심먹은뒤에 꼿 촌으로 나오는데 막봉이 잡힌곳을 와볼생각들이 잇서서 먼저 가사리로 나왓다 가사리동네 안천에잇는 큰초가집이 막봉이 고발한 바선달의집인줄을 안뒤에

「그놈의집에 불을 푹 질럿스면 조켓다」

하고 오주가 주먹을 부르쥐고

「집에 불만질르구 고만두어 사람의색기까지 씨알머리를 업새지」

하고 돌석이가 니를 갈어부치는데 꺽정이가 두사람을 돌아보며

「막봉이를 빼내온뒤에 막봉이하구 가치와서 분푸리를하세」

하고 말하얏다 일행이 가사리서 구사리를 지나 굽으내압 냇가에 나왓슬때 조흔 버드나무숩이 잇는것을 보고 사람업는곳에서 쉬어갈것을의론들하라고 숩속에와서 안저쉬엇다

막봉이를 구할방책에 대해서는 일행이 청석골서 떠나기전에 발서 두가지의론이낫섯스니 하나는 양주레대로 안성옥을 깨치고 가친것을 빼내자는 의론이요 또하나는 혜음령 권례와가티 서울길목에서 압상하는것을 배앗자는 의론이엇다 두가지의론을 한가지로 뒤하라고 여러두령들이 분분하게 짓거릴때 서림이가 안성에 가서 형편을 보지안코는 결정할수업는일이라고 말하야 방책을 미리 뎡해가지고오지안헛는데 안성와서 말들을 들어보니 안성군수가 파옥을겁내서 옥근처에 밤낫 파수를 보이되 파수보는 장교사령들이 어느때든지 급한 나발로 군호만 하면 관속은 말할것업고 읍내장정들까지 일제히 나서도록 짜노하다고한즉 파옥하자면 한바탕 큰 접전을 하여야할것이라 서림이가 이안성읍을 관민을 대뎍상대할 내키지 안는것이 외 오 번연한일이라 서림이가 주장하야 서울로 압상할때 가는 길목을 직히자고 주장하얏다

「그러면 어듸가서 목을 직히구 잇잔말이요」

하고 몰으나 서림이는

「서울루 가는데 양성 용인으루 바로갈른지 평택 수원으루 돌아갈른지 그것두 몰으구 미리 어듸가서 목을 직히겟소」

하고 대답하얏다

「그럼 엇더케햇스면 조흘것 을 말하우」

「압상해가는 일행과 압서거니 뒤서거니 자다가 중로에서 해내는게 조흘것갓소」

「그대두 한다구하면 그안에 우리는 어듸가서 묵겟소」

「읍네갓가운 촌으루 다니면서 어물장사하지요」

「우리가 촌으루 다니는 중에 서울루 가버리면 낭패나지 안소」

「그물네사람을 매일 한두사람씩 읍에 드려 보내두면 군관과군사들이 서울서 오는것을 곳알게될께니까 그런냥패는업겟지요」

「나하구 봉학이하구 유복이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 白

安州支局 位置 安州郡邑內
右依願解任 支局長 李永漢
右任支局長 金一大

求禮支局 位置 求禮郡邑內
右任支局長 安珷吉
右解任 支局長 金駿

謹告

丹城支局 總務兼記者 李壻相 記者 孫秀韻 右新任함

安州支局 總務兼記者 金鍾泣 記者 李源 顧問 吳衍 同 林鶴大 同 李茂永 同 金秉奎 右新任함

漢芝面支局 電話龍山一三九一番 記者 金炳歡 同 虞泰打 右任命함

安東縣 朝鮮男女雄辯大會

▲時日 來八月一、二、三、三日間
▲場所 安東縣六番通滿鐵公會堂
◇主催 安東朝鮮人青年會文藝部
◇後援 東亞、滿蒙、朝鮮中央、朝鮮西支局

禮山 湖西蹴球大會

▲時日 七月二十三日午前八時(雨天順延)
▲場所 禮山農校球場
◇主催 湖西記盟北區支部
◇後援 朝鮮中央、東亞、朝鮮三禮山支局

元山 流行歌、舞踊、演奏會

▲時日 七月一、二兩日午後六時
▲場所 元山舘
◇主催 天野樂器店
◇後援 朝鮮日報社元山支局

朝鮮業者에의 影響과 注意할點

石油業法施行에對한 ＝穗積殖產局長 談

石油業法施行期日은 六月三十日附로公布되엇는바本法의施行運用이朝鮮의當業者에如何한影響을與할가 又當業者는今後如何한注意를要할가等에對하야 穗積殖產局長은如左히말한다

一、石油精製業及 輸入業의範圍

本法에말하는石油精製業이라는것은 當業務의原料라하야原油의重油에서 揮發油、燈油、輕油、機械油及重油를 製造하는事業을指稱하고 永安의石炭低溫乾餾에依한石油의製造等은 이에包含되지안엇다 또輸入業이라는것은 揮發油、燈油、輕油、機械油、重油、原油를 主로하고輸入하는 營業으로 罐、樽等의容器에 너흔燈油、輕油、機械油만을輸入하는者는輸入業者로看做치안는다

二、精製及輸入業은許可를要한다

石油의精製業又는 輸入業을經營함에는 總督의許可를受치안흐면안된다 許可업시이營業을한者는 本法이既經營하든者라도 一旦許可를어든者라도 事業의讓渡、廢止、休止或은合倂等事業及經營狀態에變化를招來하는境遇에는 다시總督의許可를어든後가안이면 할수업다

또精製業은적어도一工場에對하야 一年三十萬函(正確한規定은別로定하엿슴)以上의原料處理能力을 有하는者가 안이면안되나 輸入業者에 對하야서는 資產信用 其他資格으로서 別段의規定은업다 따라輸入業은 누구나營業의 許可申請을할수잇고 또精製業도右의設備만整備되면 申請할수잇게되어잇스나 本法의趣旨에鑑하야石油의需給又는 製油業의確立等의關係로考察하야 支障이잇다고因한때는總督은이를許可치안케되어잇다

三、石油의輸入은 一般으로禁止되여잇다

前述과가티石油의 輸入은總督의許可를受한輸入業者가안인限一般에게는 禁止되엇스나精製業者가 其精製에要할原油와政府가輸入하는石油는 除外되엇다 또一般的으로는見本、旅客의携帶品、船用品、航空機及自動車의用品인 石油는輸入業者가안이라도 輸入할수잇고 容器에너흔燈油、輕油及機械油만은 그目的이營業用品일지라도輸入할수잇도록特例를設하얏다

四、輸入量은 統制된다

總督의 許可를어든輸入業者와精製業者라도 實際에잇서서는 제마음대로 輸入할수업다 每年의輸入數量에對해서는 따로認可를受하고 輸入할때마다 詳細한屆出을 하지안흐면안된다 即總督은各輸入業者에 對하야一個年의 事業計劃을提出시긴후全國的의 需給狀態를考慮하야支障을 招來치안을範圍內에서 認可하게되여잇슴으로 國內의需給의統制는保持될것이다

五、輸入이라는것은?

本法에서말하는 輸入이라는것은外國으로부터 日本帝國內에輸入하는것을 指稱하는것으로 朝鮮海關等에서 말하는 輸入에例하면 保稅地域에서關稅手續을 了하고 가저드리는것과가튼것은 이를包含치안는다 따라從來漁業者、鑛業者、工場主等이 自家用燃料로서免稅를受하기爲하야 關稅法에依한輸入許可를어고 保稅工場에서 重油의輸入을하고잇는것은本法의輸入에는 該當치안음으로 本法施行後라도從前과가티繼續하야도關係업다 單只外國에서 直接輸入하는것은許諾되지안는다

六、輸入及精製業者의義務負擔

輸入又는 精製業의許可를어든者는 實際에잇서서는 한特權을賦與된것과同樣하나 그反面에잇서 相當히重한義務를負케된다 即一個年의輸入數量의二分의一以上에該當하는(計算의方法은 施行規則에指示되엿다)石油를當時保有치안흐면안된다 從來라할지라도 各營業者는營業上當然必要한 적어도二、三個月分의在庫는 常時잇섯슬지나 今後는所定의탕크에貯藏하여야하고 이에다常用在庫品을加하면 相當한스톡을要하게된다 그리고 保有義務는來年一月日부터發生하게되어잇고 그때까지는 相當히猶豫期間도잇슴으로 이새에充分한保有의準備를하야둘것이다 萬若輸入品의包裝 形態其他의性質上到底히所定의탕크貯藏을 할수업는때는 詳細事由를附하야 總督의許可를受치안으면안된다 또義務의一로서 萬若石油를政府가購入하려할境遇에는 業者는이를拒絶할수업게되엿다

七、政府의命令及 監督權

本法은 輸入業者에 對하야서는어떤意味에잇서 特權을與하고또精製業者에對하야서는保護助長을加하게됨으로 價格의上等의弊害를生할虞慮가잇슴으로 消費者側의利益을擁護하기爲하야 不當한價格을示現하는境遇에는 直時이變更命令을發할수잇게되어잇다 따라本法施行의時는 必然的으로價格의昻騰을招來하지나안을가하는 疑懼의念을抱懷하고잇는者도잇는듯하나 不當한値上等은잇슬수업다 또業者의營業狀態에對하야서는 不絕히詳細한報告를提出시기어 一目그狀況을 知悉할수잇게하야 監督을加하고잇슴으로 石油需給의 確保、設備의 改良其他營業上必要한時는 何時에나命令을 發할수잇도록하고 또業者의營業所、工場、貯油所等을 隨時臨檢하고 又는 帳簿其他의物件을檢查하야 必要한命令을發하고 又는 其他의狀況에關하야서는 恒常公明을期하야둘것이다

八、制裁

本法은 國家的의統制規定임으로 違反者에對해서는 嚴罰主義로써臨하야 許可업시輸入業又는精製業을經營한者 또는輸入한者 保有義務及命令에違反한者 또는事業計劃의認可를受치안코 又는認可업시事業計劃을變更한때 命令에依한報告를하지안코 又는虛僞의報告를한때 又는當該官吏의臨檢을拒絕 妨害、忌避하고 又는質問에對하야答辯치안코 또는虛僞의陳述을한때等 各히罰金刑에處하기로하고 이境遇는設令 雇人 家族其他의從業者가犯하얏다할지라도 營業者는刑을免할수업다

九、移入業者

日本內地에서 製造된石油는 外國產石油라도 一旦日本內地에輸入된 石油만을 朝鮮에移入販賣하는當業者는 相當히多數잇는바 어느이에까지든지國內的의移入과 다름으로는 輸入業의許可도 또移入에關한許可도 必要치안타 또保有義務도업고 自由로운 立場에잇다

十、現在事業을 經營하고잇는者

朝鮮에는 이미 工場設置中의精製業者及 現在營業中의輸入業者가잇는바 이는本法施行의日부터 一定한 期間本法에依하야 許可를受한者로 看做하게되엇슴으로 새로營業의許可를要치안는다 또今年에限하야 事業計劃의認可도 要치안으나 單只施行規則所定의事業의狀況을二個月以內에 總督에게屆出할것으로 萬若이를屆出하지안는者는 事業計劃은 勿論할 것이다

十一、이미注文濟 又는輸送中의것

本法施行의際現在輸送途中에잇는것과이미注文濟의것을輸入하는境遇에는 그種類、數量、積出地、積出港其他施行規則所定의事項을 詳細히一個月以內에總督에게屆出할 것으로 이를容認하게되여잇다 以上本法의施行에際하야本法의骨子로하는點及當業者에 對하는影響에對하야 그槪要는說明하얏스나 詳細한點、不審한點은 施行規則을 보고 不審한대로 解決하고 事業을進行하야 本法에抵觸하면안될것이니 特히注意할것이다

石油業法施行令

第一條 石油業法第一條의石油精製業은 鑛物性의原料油(含油頁岩、石炭과密接한關係잇는可燃性天然瓦斯를包含함)에서 鑛物性의揮發油、燈油、輕油、機械油又는重油를精製하는事業 但石炭又는油母頁岩에서製造한原料油에서 鑛物性의揮發油、燈油、輕油、機械油又는重油를精製하는事業을除함

石油業法第一條의石油輸入業은 石油(鑛物性의揮發油、燈油、輕油、機械油、重油又는原油)를輸入하는事業 但罐、樽其他이에準하는容器에너흔燈油、輕油、機械油만을輸入하는事業을除함

第二條 石油業法第一條의石油精製業의許可는 精製業의工場마다이를受할것 石油精製業의工場으로서는 原料油의處理能力이 一年五萬키로릿틀以上의것에對하야 이를許可함

第三條 商工大臣은 石油의需要供給의 調節을爲하야 石油業의 健全한 發達에支障이잇다고認하는때는 石油業法第一條의許可를하지안음을得함

第四條 石油精製業者又는 石油輸入業者가 아니면 輸入할수업는 石油의種類는 鑛物性의揮發油、燈油、輕油、機械油、重油及原油로하고 同條의規定에依하야石油精製業者가 輸入할수잇는石油의種類는 鑛物性의重油及原油로함

第五條 左의各號의一에該當하는境遇에잇서서는 其輸入者는石油輸入業者임을要치안음
一、政府의輸入에關한石油
二、見本、標本又는旅客의携帶品인石油
三、船用品、航空機의機用品又는自動車의車用品인石油
四、罐、樽其他이에準하는容器에너흔石油(鑛物性의揮發油、重油及原油를除함)

第六條 石油業法第五條의規定에依하야 石油輸入業者가保有할石油의數量은 前年中에輸入한數量의二分의一로함 但石油輸入業者가 天災事變其他의事由로因하야 前項의保有할數量에不足한때는 商工大臣의許可를受하야 其不足한數量을保有치아니함을得함

第七條 石油業法第五條의規定에依한石油의保有는 命令으로定하는場所에서 이를하여야함

第八條 政府는軍事上必要가잇는때는 石油業法第六條의規定에依하야 石油精製業者又는石油輸入業者가所有하는石油를 購入함을得함

第九條 陸軍大臣又는海軍大臣은 前條의規定에依하야 石油의購入에關하야 商工大臣에協議할것

第十條 本令中商工大臣이라함은朝鮮에잇서서는朝鮮總督으로함

▲附則

本令은 石油業法施行의日부터 이를施行함

南朝鮮고무統制

三井을背景新會社創立準備進行
完了後는平壤京城도參加케할터

【釜山】釜山을中心으로한고무工業統制는 三井物產을背景으로 新會社를創立한다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 釜山側丸山、日榮、東田、釜山工業、一成、六工場의資產價額協定이 完了되어이제 大邱의第一、彗、江景의丸大、裡里의旭、木浦의東亞、光州의旭等六工場의 價額協定을査定中不遠 終了될것임으로方今統制會社設立準備를 着着進行하고잇다는데 七月中旬頃創立總會를 開催하기로되여잇다한다 新會社創立 統制後에는 各持寄 工場의名稱을 釜山第一、第二、第三、四、五、六、工場이라하며 地方은 地方別로第一、第二工場이라 할것이라한다 各工場에서는 男子用、女子用、背、白色等 製品別分業制度를取할것이며原料輸入關係製品輸移出의 便宜上 本社는釜山에留置할作定이며 南朝鮮工場의統制가完了後에는 다시京城平壤等地工場도 參加케하야全朝鮮統制를 보리라고한다。

寫眞上은 橫城作業婦人會의 移秧光景 下는 永同農業校이 記念移秧後의 休憩光景

南倉港埠頭新築

【海南】莞島의關門이요海南의 生產이年二十萬圓에 오르나리는 海南郡北平面南倉港은 海南第一의漁業地로서 往來客도만흔곳인데 于今港口의整理가되지못하야 往來客은勿論地方人으로도 不便할뿐안이라적지안은 損害가잇다하야 屢次道知事에 陳情을하여오든바 今春에이르러 道地方課長이 土木技手를 引率하고實地踏査한結果 爲先埠頭工事나하기로하야 一萬圓豫算으로 近近着手하리라한다

雨量洽足으로 江景移秧順調

【江景】年產三十萬石의 忠南江景大平野는 雨量이洽足하야 지난十三日까지에 約七割의移秧을맛추엇나한다

忠南貯藏租解除

四萬六千九百二十八石

【大田】長期貯穀의 影響을바더 米價가暴騰되여 細農民의生活上 큰威脅이되어오던터인데 忠南에서는 總督府指示에依하야 長期貯藏正租中二割 四萬六千九百二十八石을 解除하기로 하엿다고한다

道倉庫	一六、九五〇石
郡農會	二九、九七八石
合計	四六、九二八石

高麗人蔘의 中、滿進出不振

打開方策講究가急務 實地視察後某氏談

【開城】滿洲及上海의 兩大市場에 高麗人蔘의販路가 一時는거의杜絕되다십히되엇나가 停頓以後漸次販路가 다시열렷스나 아즉시원치못함으로開城蔘業組合에서는 그實況을實地로觀察키로하고 四月二十六日에同組合幹部曹蒲煥、黃中顯兩氏가 同組合書記禹昌命氏를帶同하고 約四十日間臺灣、香港、中國南方을視察하고 滿洲國을經由하야 去五日에無事히歸國하얏는데 前記視察員某氏談에依하면 蔣介石氏가表面上親日的態度를表明함으로 同氏勢力圈內에서는 人心이漸次緩化되여紅蔘販賣도 漸次良好히가는形便이나 揚子江以南의蔣氏勢力圈外에서는旭日의勢로 進出하는日本資本의進出을防止코저 歐米資本을誘入하며 따라서日本物資의排斥氣勢가 식지안흘뿐만아니라 南中國은南洋과의經濟關係가密接하야 南洋의好況은南中國에好影響을주며 南洋의不況은 곳南中國에惡影響을끼치는바 近來南洋의 砂糖其他의不景氣로 南中國의經濟形便이 조치못하야 紅蔘販賣에큰不利를 입고잇스며 吉林에서生產되는 所謂「滿洲蔘」의中國本土에의 需要가 놀랄만큼만하 高麗紅蔘販路에莫大한影響이잇다고 밋는다하며別다른方途를차리지안으면 高麗紅蔘販路는當分間 그리시원치못할것이라고한다 形便이如此한즉 人蔘의都市 開城으로서는 妙한打開策講究가 急務라고할것이다

各地蠶繭共販

▲春繭取引市勢 (農林局發表)

月日	場所	種別	最高(錢)	最低(錢)	買賣(錢)	掛目	數量(키로)
六、二六	江原洪川	白	四四	三七	三七	三、三五	一、八四
二七	同 同	同	四四	三七	三六	三、三五	三、五九九
二八	江原楊口	同	四三	三六	三六	三、三	六、〇三〇
二六	黃海金川	同	四六	三七	四四	四、四	一、〇九九
二七	同沙里院	同	四七	三七	四三	一五	三二
同	同瑞興	同	四六	三四	四三	四、四	四九六
同	平北寧州	同	四八	三四	三九	三、七	三六
同	咸南文川	同	三九	三六	三七	三、三	四七〇

【平壤】平南春蠶繭共同販賣는 二三日中에擧行할豫定인데 繭價의低落으로 豫想과갓지못하여 二十八日까지의出廻는一萬七千三百四貫으로共同販賣를할바대도 二萬五千貫이 차지못할說錄이다 그런데昨年의實續은 八萬二千六十一貫으로今年은十萬貫의豫定이엇섯스나겨우二萬五千貫입으로 豫定의四分의一에도達하지못한다 땀을흘리고 養蠶을하여農價를갑고려하든 農家에서는 生活困境에直面하게되엇다한다

【成川】成川郡農會에서는

例年과가티 蠶繭共同販賣를 지난二十日부터 同二十六日까지 開始하엿는데 今年의蠶繭價는 昨年에比하야 엄청나게暴落되야 蠶種값과뽕값은 고사하고 一個月間의수고한갑도안된다고하야 養蠶家에失望과大打擊을주는同時에 蠶業獎勵의 將來計劃에 만흔支障이잇스리라하야 當局에서도 크게頭痛을앓는다는바 今年春蠶繭價는 아래와갓다고한다 特等一貫一圓六十六錢 一等一圓五十二錢 二等一圓三十八錢 三等一圓二十四錢 四等一圓十錢 等外九十七錢

【安邊】咸南安邊郡農會에서는 지난十六日부터 同郡蠶繭共同販賣場에서蠶繭共販을 開始한바 今年에는고치갑시 엄청나게떠러저서 生產費도못되는形便임으로 採賃者를除한外에는 大部分고치를팔지안코잇슴으로 共販場은매우閑散한터인데 販賣를始作한當日의等級과價格은아래와갓다고한다 特等一圓五十六錢 一等一圓四十三錢 二等一圓三十錢 三等一圓十七錢 四等一圓五錢 等外九十一錢 屑四十六錢 玉三十九錢

【白川】黃海道白川郡에서는 지난二十三日부터蠶繭共同販賣를 開始하엿는데蠶價暴落으로 一般農家에서는매우落望中蠶買가 閑散하며出廻한고치도팔지안코 殆半이나도로가지고갓다는데 當日繭價는다음과갓나한다 特等一貫一圓六十四錢 一等一貫一圓五十一錢 二等一貫一圓四十一錢 三等一貫一圓三十一錢

【保寧】忠南保寧郡春繭共同販賣는 同郡大川面共同販賣場에서 지난十三日부터二十五日까지 十三日間과熊川面販賣場에서는十三日부터二十二日까지의十日間 共同販賣를開始하엿는데 繭價暴落으로蠶種代와勤勞費用은고사하고 뽕갑도못된다고一般生產者들은 落心을하는狀態이다 特等 一、六五 二等一、五一 二等 一、三八 三等一、二四 四等 一、一〇 等外〇、八三 屑上 〇、五五 屑下〇、二八 玉上 〇、四八

【錦山】全北錦山郡錦山面、珍山面、永賓面三面에서 春蠶

【高原】(咸南高原郡農會)에서는 지난二十日부터高原山谷 雲谷三個場所에서 春繭共同販賣를開始하엿는데 今年은 氣候도 順調로운關係로養蠶飼育의 成績이매우良好하여 一般農家에서는 크게期待를가젓스나 繭價暴落으로 헛수고만하게되엿다는바 現在高原의販賣市勢는다음과갓다고한다 特等一圓六十錢 一等一圓四十四錢 二等一圓三十三錢 三等一圓二十三錢 四等一圓〇六錢 等外九十三錢 屑四十七錢 玉四十錢

【北倉】平南孟山郡農會에서는 昨年과가티 邑內 鶴田 玉川等四個所에서 二十二日부터 七月十五日까지 春蠶共同販賣를 開始하얏든바 標準價格은 十四掛五一貫에 特等一圓七十四錢 昨年에는 三十四掛三에 比한다면三分의一가량으로 低落되여 一般農家에 大打擊을주게되엇는바 今年은 지난三月二十二日의 暴雨와 寒氣로 改良桑樹는 全滅되는狀態로 一般蠶業家에는 生產費도못되다고한다

【洪川】洪川郡은江原道內에서屈指하는蠶業地로每年萬石에갓가운蠶繭을生產하야그일홈이널니알리워잇든터인데 今年에도春蠶으로 改良蠶種五、八〇〇餘枚나 掃立식혀고치대목오기만苦待하고잇든 各農家에서는 지난十八日부터 開始되는共同販賣場에서 昨年의三分의一도안되는 엄청나게暴落된市價를보고는 모도팔려야팔수도채되지안는다고 모처럼바라든고치대목도 虛事로 愁眉를못펴고 數十里式지고왓든고치를실로푸러집에서 나허입겟다 고도로지고가는일이만흔데 그중에도農村婦女들에 각가지꿈을다세우고 希望에넘치어가지고왓든고치를 몃푼안되는값세다가蠶種代金까지 減하고 밧

三等 一圓二十錢 四等 一圓〇七錢 等外 七五錢 屑上 四七錢 屑下 二二錢 玉繭 四十錢 二十日부터는十二錢式이올넛다고한다

【利川】京畿道利川郡內에는 養蠶家들의動搖가 잇다는바 仔細한것을調査하야본즉 高尺里某氏는 지난十六日에生繭二十四貫五百八十匁을 五十四圓七錢에 賣買하여왓슴으로그것을알게된사람들은 不滿을품고 利川共同販賣場에서는 每貫에 一圓六十二錢式인데 京城府鍾路五丁目某商會에서는 每貫二圓二十錢式에 前記某氏가팔어왓슴으로 養蠶家들은엇지하야 이와가티價格에 差異가甚하게되여잇느냐고원망하면서 利川共同販賣所에서는 賣買할수가 업스니 京城으로가서販賣하는 것이 우리의利益이되겟다고하야動搖들일으킨模樣이라고한다

【金川】黃海道金川에서는 지난十八日부터 蠶繭共同販賣를開始하엿는데 十九日發表된價格에依하면 特等一貫에對하야 一圓七十三錢과 一等一圓五十五錢으로客年에比하면六割以上의慘落을보게되엿다 더욱히買桑養蠶家는 한날동안不眠不休로수고한努力은 水泡로도라가고 蠶繭金額이 蠶種갑과뽕갑에지나지못한다한다

【求禮】繭價는暴落한데米價는高騰하야 一般農民은二重의打擊을바듬은 各地맛찬가지려니와 全南求禮地方의今春蠶繭販賣狀態를보면 總販賣高約九百石가량에 價格은萬圓에不過하야 去年에比하여보면數量은가튼데價格은 去年의三分의一밧게안된다 한다 그러나掃立枚數는 去年보다三百餘枚가增加되엿음에도不拘하고 販賣數量은도로혀 去年보다줄엇다는畜現狀을보하고잇다는데 이는고치갑이 너무헐하야生產費가못되므로팔지안은사람이만흔關係라고한다

副業產品時勢週報 (朝鮮副業協會調查)

京城 (六月二十六日)

◇菜蔬類

品名	產地	單位	價格
고구마		一貫	[illegible]
馬鈴薯	白	同	[illegible]
同	赤	同	[illegible]
토란		同	[illegible]
人蔘		同	[illegible]
외	朝鮮產	百個	[illegible]
외	中國	同	[illegible]
수박	臺灣	一貫	[illegible]
同	土產	同	[illegible]
茄子	土產	百個	[illegible]
일년감		一貫	[illegible]
靑葱		同	[illegible]
쑥갓		同	[illegible]
양상치		同	[illegible]
미나리		十把	[illegible]
蓮根	土產	一貫	[illegible]
生薑	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마늘		百個	[illegible]
牛蒡		一貫	[illegible]
南瓜		同	[illegible]

◇果實類

品名	產地	單位	價格
苹果	滿紅	四貫	[illegible]
同	國光	同	[illegible]
同	倭錦	同	[illegible]
夏蜜柑		十貫	[illegible]
梨	早生赤 日本產	三貫五百匁	[illegible]
同	朝鮮產	同	[illegible]
同	今村秋	同	[illegible]
同	晩三吉	同	[illegible]
잣		一斗	[illegible]
실백		同	[illegible]
苦椒	朝鮮	百斤	[illegible]
실苦椒	朝鮮	同	[illegible]
胡桃		一石	[illegible]
栗		一斗	[illegible]
乾柿		百個	[illegible]
고사리	乾物	一束	[illegible]
大棗	中國產	一斗	[illegible]
同	朝鮮產	同	[illegible]
銀杏		同	[illegible]
乾蘿葍		同	[illegible]

◇家畜類

品名	種別	單位	價格
生鷄	雄	百匁	[illegible]
同	雌	同	[illegible]
生豚		一貫	[illegible]
生兎	白五百匁以上 의것	百匁	[illegible]
同	雄雌 二百五十匁以上 四百匁	同	[illegible]
同	모더	同	[illegible]
鷄卵		百個	[illegible]

◇毛皮類

品名	種別	單位	價格
간고라兎毛	三吋半以上	一封度	[illegible]
同	三吋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二吋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半以上	同	[illegible]
同	一吋以上	同	[illegible]
同	梳毛	同	[illegible]
同	屑毛	同	[illegible]
레기스兎皮		一枚	[illegible]
豚	胴毛	百斤	[illegible]

◇麟買品

品名	種別	單位	價格
成鷄用配合餌		八〇斤	[illegible]
靑雛用	同	五〇斤	[illegible]
中雛用	同	同	[illegible]
麩		九〇斤	[illegible]
玉蜀黍割(大)		同	[illegible]
同	(小)	同	[illegible]
高粱粒		五斗	[illegible]
同割		同	[illegible]
鷄用粉		二叭	[illegible]
魚粉	粕	八〇斤	[illegible]
糠		八五斤	[illegible]
貝殼		百斤	[illegible]
四季鳥餌		十個	[illegible]
蜂蜜	石油罐一罐		[illegible]

◇養蠶用織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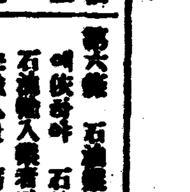
品名	種別	單位	價格
四尺幅二寸目		百尺	[illegible]
三尺幅	同	同	[illegible]
同	一寸半目	同	[illegible]
四尺幅一寸半目		同	[illegible]
三尺幅五分目		同	[illegible]

◇其他副業品

品名	種別	單位	價格
麥稈眞田	上	一反	[illegible]
同	中		[illegible]
同	下		[illegible]
經木眞田		同	[illegible]
把柳		一貫	[illegible]
莚草		同	[illegible]
栗虫蠶		百斤	[illegible]
椎茸		一貫	[illegible]
切乾大根	(서려말린무우)	十貫	[illegible]

◇川魚類

品名	種別	單位	價格
자라		一貫	[illegible]
잉어		同	[illegible]
붕어		同	[illegible]
미꾸리		同	[illegible]
가물치		同	[illegible]
메기		同	[illegible]
뱀장어		同	[illegible]
蜆(小蛤)		一升	[illegible]



探偵小說 **艶魔** (32) 徐東山 作 金奎澤 畫

역습(逆襲) (二)

조끔잇다가 교환수는 지금전화는 자동전화에서 온것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리라고 생각한것인데 역시 추측이 어그러지지 아니하엿다。

자동전화에서 온것이라면더 추궁해도 소용이업다。

어느곳인지 알어가지고쫏차간데도 그가 그때까지 그곳에 꿈을거리고 잇슬리업는것이요 또 편지에도 지문을남기지 아니하는 때들이니 자동전화엔들 지문을 남길리가 업는것이다。

영호는 그자리에서 제일여관에 묵어잇는 상순이를 전화로 불러내엇다。

아침밥을 재촉하여먹고 을나오는길에 집으로 오지말고 익선동 이러이러한 집으로가서 오목이와 교대를하라 그리하되 안방 다락가튼데 숨어잇서가지고 누구든지 드러오거든 잘보아두엇다가 그의 뒤를 밟어보라 ―

한시간가량 지나서 오목이가 상순이의 추렁크를 들고 도라왓다。

지금까지는 아모 이상도업섯다고 오목이는 수면부족으로 충혈된 눈을 부비면서보고를한다。

「열두시까지만 자게……헌데 상순이는?」

아직 나히어린 상순이지라 영호는 마음이 노히지 아니하는것이다

「안방 다락에 자리를잡고잇습니다 ― 내다볼 구멍을뚤려노코 ― 한목끼어 활동하는것이 조흔지 와주 싱글벙글하든데요」

오목이는 조금전에 영호가 분부를 다 전한것도 모르고 재야말로 싱글벙글 웃는다。

영호도 할수업시 고소를하고나서 신변이 차차 위험해올지 모르니 밤과 또 잠자는 방문을 안으로 잘 다더거물것은 물론이요 나제도별심을 하지말나고 주의를식혓다。

그러나 그들은 둘이 다이러한일은 꿈에도 생각치못하고잇섯다

즉 오목이가 익선동 그집으로부터 나오기 겨우 삼분전의 일이다

자가용도 아니요 보통 영

연하는 인력거한채가 화살처럼 골목으로해서 그집문앞을 지낫다

인력거안에서는 지창 두개의 눈이 그집의 대문이 환히 열어잇는것을 보앗다

인력거는 그대로 그집앞을 지나첫다

인력거는 철선 더가서 큰길에서 그런하게 대문이 크고 전화번호패와 적선자산원때까지 부튼집 문압에 대엇다

대이며 가든 방향과 반대로 안을 돌니어 오든방향 쪽 익선동 그집을 압흘통으로 세로로이 도로 내어다 볼수잇게 대어노앗다

이러케 인력거는 대어 노앗스나 인력거안에서는 사람이 내리지 아니하엿다。 인력거꾼은 타고온사람이 무어라고했는지 보이지 아니하는곳으로 멀직이 비커섯다。

누가보든지 그 큰대문앞에 한집에서 타고나가려고 불너다노흔 인력거인줄로 알게되엇다。

그러나 인력거안에서는 두개의 눈이 열쾌히 바라보이는 익선동그집압흘 감시하고잇는것이엇다

그러자 오목이가 추렁크를 들고 그집으로부터 나왓다。

이 인력거안에서 빤히내어다 보엿다。

오목이가 안심하고 저편으로 걸러가자 인력거안에서는 차부를 불럿다。

「이걸 손에쥐고 ― 남이보면편지를 가지고 심부름가는것처럼 말이야 ― 저기 가방을 들고가는 사람의뒤를따러가보아……어느집으로 가는지 그것만보고오게」

인력거안에서는 조이를 접은 쪽지 하나가 나온다

차부는 그것을 바려들고 오목이의 뒤를 따러다 추렁크를 들고가니 그림자를 노칠리가업다

차부는 게동으로 따러올나왓다 그는오목이가 드러가는 영호의집을 보아두엇다가 한참후에 그합까지 드러와서야 모에게도 물켜지 아니하고 번지까지 일어내엇다。 그는다시 발을 도르켜 인력거가 잇다리는곳으로 내려갓다。